



안정된 노후설계

농지연금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젊은생각 · 바른신문 전화 042-538-3030 구독배달 042-538-1602

www.daejeontoday.com

제 2788호 2018년 4월 4일 수요일

“자유한국당 개헌안 수도조항은 ‘관습 헌법의 부활’”

세종시민단체 · 더민주 · 세종시장 밝혀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상임대표 : 맹일관, 최정수, 이하 ‘대책위’)는 “2일 발표한 자유한국당 개헌안에 포함된 수도 조항은 ‘관습헌법의 부활’이자 ‘봉건시대로의 회귀’로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단호하게 밝힌다.”면서 “관습헌법에 의한 수도 조항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염원하는 전국민의 투쟁과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염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일 자유한국당은 개헌안 중 수도조항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내용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헌법에 명시하되, 다만 법률을 통해 수도의 가능 가문에 일부를 다른 도시로 이전 할 수 있는 길은 열어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정녕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이라는 시대정신을 망각하고, ‘수도권은 1등 국민, 지방은 2등 국민’을 고착화시켜 지역과 국민을 분열시키려고 작정을 한 것인가?”라고 꼬집어 말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의 수도 조항 논리에 따르면 수도에 관한 어떤 법률을 제정하더라도, 2004년 신행정수도 위원회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알 수 있듯 반복적인 위원회 소송과 정쟁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은 필수적으로 동반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난 대선에서 당시 홍준표 후보는 2017년 4월 12일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헌법에 명시하겠다”며 “국회를 국무총리 산하 기관과 함께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명 의견서를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에 전달한 바 있다.”

대책위는 “자유한국당의 수도 조항은 정부의 ‘수도법률위임’ 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연하게 수도 논쟁을 반복하자는 것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대립시키는 시대 정신과 현실인식이 결여된 죄악의 선택”이라면서 “

자유한국당은 정녕 지방분권과

고 말했다.

이에 대책위는 “자유한국당 충청권 국회의원과 시도당은 충청도민의 간접한 염원이자 숙원사업인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해 과연 무슨 일을 했는지 단호하게 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세종시를 망신으로 만들자는 자유한국당 당원이 확정되는 과정에 동참하고 동의한 것인지 소상하게 답해야 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은 관습헌법을 부활시켜 행정수도의 범목을 잡고 세종시를 망신으로 만들겠다는 수도 조항을 철회하고,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통해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고 국가균형발전이 실현되는 국가대업에 동참하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도 이날 성명서에서 “행정수도 세종을 반쪽짜리로 만드려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당은 “세종시 행정수도

의 원성은 대전충남 모두의 염원이며,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원성을 위한 시대의 요구이다.

아울러, 국민 절반이 몰려있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라며 “거기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이라는 생소한 말로 행정수도 완성을 가로막았다. 이에 정부는 그 결정을 존중하면서 헌법 문제는 헌법으로 풀자는 결단으로 행정수도를 법률로 정하는 개헌안을 냄으로써 대전 시민과 충청도민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시당은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히려 헌법에서 서울을 수도로 명시하는 개헌안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수도의 일부 기능을 법률로서 이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자고 하니, 이는 현재의 기형적인 구조를 고착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면서 “행정수도 완성이 미뤄지면서, 지금도 공무원들은 세종과 서울을 오가며 길 위에 시간과 혈세를 버리고 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수도권 중심의 정략적 사고에 따라 이를 고착화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전시당은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대전 시민과 충청도민의 자존심을 짓밟지 말기를 염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권력이 가한 폭력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꿈나무장학회, 전민중학교에 장학금 전달·격려

4월 3일 꿈나무장학회(회장 유미자)는 유성구 전민동에 위치한 전민중학교(교장 전홍식)에서 수업성적이 우수한 모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꿈나무장학회는 대전시와 인근 세종 충남에 있는 종교교에 우수한 학생들을 발굴 육성해 미래 역군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전민중학교에는 5명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4·3 완전 해결 약속… 국가폭력 의한 고통 깊이 사과”

문 대통령, 제주 4·3희생자 추념식 참석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저는 오늘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한다.”

며 “더 이상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일 추념식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4·3의 진실은 어떤 세력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의 사실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는 4·3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하고 4·3위원회를 만들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4·3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위령제에 참석해 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께 사과했다.”며 “국가폭력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고통과 노력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권력이 가한 폭력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유해 빌굴 사업도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끝까지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족들과 생존 희생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배·보상과 국가기록우마센터 건립 등 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4·3의 완전한 해결이야말로 제주도민과 국민 모두가 바라는 화해와 통합, 평화와 인권의 확고한 밑받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4·3의 진실을 외면하고 낡은 이념의 굴절된 눈으로 4·3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대한민국엔 낡은 이념이 만들어낸 증오와 적대의 언어가 넘쳐난다.”며 “이제 우리는 아픈 역사를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행한 역사를 직시하는 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만 필요할 일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도 4·3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낡은 이념의 틀에 생각을 가두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

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보수와 정의로운 진보가 ‘정의’로 경쟁해야 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공정한 보수와 공정한 진보가 ‘공정’으로 평가받는 시대여야 한다.”며 “정의롭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면 보수든 진보든 어떤 것들이든 국민을 위한 것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삶의 모든 곳에서 이념이 드리웠던 적대의 그늘을 걷어내고 인간의 존엄함을 꽂아줄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자.”며 “그것이 오늘 제주의 오름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주는 깊은 상흔 속에서도 지난 70년간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외쳐왔고 이제 그 가치는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으로 이어지고 인류 전체를 향한 평화의 메시지로 전해질 것”이라며 “항구적인 평화와 인권을 향한 4·3의 열망은 결코 잠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대통령인 제게 주어진 역사적인 책무”라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충남 인권조례 결국 폐지키로 … 시민단체 반발

충남 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주민들의 인권보호 등을 담은 조례를 없애버렸다.

충남도의회는 3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충남도가 다시 심의·의결해달라고 요구한 충남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충남도는 지난 2월 도의회가 충남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하자 재의를 요구했었다.

재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재의안이 처리되는데, 26명이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찬성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 24명과 바른미래당 김용필, 무소속 이기철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충남도는 도의회가 가결시킨 재의안이 넘어오면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충남 인권조례는 지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자

유선진당과 당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제정된 것으로, 이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인권조례가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한다며 인권조례 폐지에 나섰다.

한편 충남인권조례기기 공동 행동과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 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한 의원에 대해 낙선운동을 포함한 책임을 묻는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 과정이 생중계 된 적은 있지만 1·2심에서 중계가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법정 방청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하급심 재판을 재판부 재량에 따라 TV나 인터넷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생중계 시 피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라면 생중계가 가능하다.

김정환 기자

6일 박근혜 1심 선고 TV 생중계… 법원 “공공 이익 등 고려해 허용”

오는 6일 오후 2시 10분으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중계 방송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생중계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박 전 대통령의 자필 답변

서를 검토했지만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면, 법정 내 집서 유지를 위해 특정 방송사의 카메라를 법정에 설치하지 않고 법원 자체적으로 소유한 카메라 4대를 이용해 영상을 송출하기로 했다.

현법재판소 탄핵심판이나 대법

모든 것을 새롭게

All New 하이트

대한민국 No.1
셀링비어

80년 맥주
제조 노하우

EXTRA
PALE LAGER

CHEERS!
KOREA



충남도지사 관사 폐쇄 여론 고조

충남도의회 이기철 의원 “지방자치 역행, 도지사 관사 폐쇄해야”

충남도의회 이기철 의원(아산1)
이 충남도지사 관사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공되는 관사는 중앙 집권 시대의 유물이고, 매년 수천만원의 혈세를 잡아먹는 등 지방자치를 역행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3일 열린 제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지사 관사의 부적정 문제를 꼬집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지사 관사는 대지 2148m²(650평), 연면적 337m²(102평) 규모로, 사업비 약 18억원이 투입됐다.

이 관사는 매년 1000만원 이상의 공관 운영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청원경찰 3명이 3교대로 순환 근무하는 등 제반 인건비를 포함하면 수천만원의 도민 혈세가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점을 인지한 대부분 광역자치단체는 관사를 폐쇄하고 있다.

도지사 관사는 전근이 깊은 임명직 공무원을 위한 관치시대의 산물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관사를 운영하는 시도는 충남도를 포함한 7곳에 지나지 않는다. 도내 기초단체만 보더라도 광주시와 논

산시만 운영 중으로, 대부분 관사를 폐쇄하고 있다.

이 의원은 “관사의 용도가 폐기되기 시작한 것은 단체장을 민선하게 된 1995년부터이다”라며 “민선 초대 지자체장에 도전했던 후보 다수가 관사 폐지 및 주민 환원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충남의 재정지지도가 30%에 지나지 않는 열악한 상황에서 도지사 관사를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도지사 관사는 전근이 깊은 임명직 공무원을 위한 관치시대의 산물이다”라

고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민선 7기가 도래하기 전 관사를 하루빨리 폐쇄하고 관련 비용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며 “매각하는 방안과 공익적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풀뿌리 자치를 실현해 가야 할 지자체장들이 관사를 사용하고, 전기·가스 등 관리비까지 지원받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며 “충남도는 세금 한 푼이라도 절약해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정복기자



홍성군선관위, 장애인 유권자 대상 투표체험 행사 실시

홍성군선관위와 홍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장애인분과)는 3일 장애인 유권자 150여명 등을 대상으로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홍성군선관위와 홍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장애인분과)는 군청 및 장애인복지단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장애인 투표 서비스 지원 방안에 대한 업무협의회를 개최한 후 지방선거 투표 방법 안내와 함께 투표체험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체험행사는 지방선거에 사용될 사전투표 장비들이 배치되는 등 실제와 같은 환경을 조성하여 사전투표에 대한 유권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윤석우 공주시장 예비후보, 정책발표회 개최

선거사무소 기자회견 갖고… 공주발전 위한 정책 발표



더불어민주당 윤석우 공주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3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주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윤 예비후보는 공주 개발에 대한 정책을 생각하고 계획하면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지 정말 공주 발전을 위한 것이 무엇

인지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해왔다. 사실상 공주가 교육의 도시라는 명성을 잃은지 오래였다. 영유아들은 세종의 대형마트의 문화센터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또한 초·중·고 학생들의 학원 교육을 위해 세종과 대전으로 이사를 가는 전출인구가 많아졌다.

공주=정상범기자

더민주당 세종시장 이춘희·대전 박영순 이상민 허태정 경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 심사 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정성호)는 지난 2일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한 가운데 서류심사와 공천적합도(여론조사) 점수를 종합해 광역단체장 후보자 심사를 완료했다.

서류심사는 3월 28일부터 진행됐으며, 공천적합도 조사는 무선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면접심사는 지난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됐다.

총 17개 지역을 심사한 가운데 단수 지역은 5곳, 경선 지역은 10곳, 광주는 일부 후보자들간의 단

일화 결과를 보고 결과를 발표했다.

단수 후보자는 부산 오거돈 후보, 울산 송철호 후보, 세종 이춘희 후보, 강원 최문순 후보, 경북 오중기 후보로 결정됐으며, 심사 총점 및 공천적합도 조사 점수에서 현격히 차이가 나아갈 경우 결정됐다.

경선 지역 중 3인 경선 후보자는 서울 박영선 박원순 우상호 후보, 대구 이승천 이상민 허태정 후보, 인천 김교홍 박남춘 흥미영 후보, 대전 박영순 이상민 허태정 후보, 경기 양기대 이재명 전재철 후보, 전남 김영록 신정훈 장민체 후보

이정복기자

로 결정됐다. 3인 경선 지역은 경선 1인 후보자가 과반을 넘지 않을 경우, 최다 득표한 2인이 결선 투표를 할 예정이다.

2인 경선 후보자는 충북 오제세 이시종 후보, 충남 복기왕 양승조 후보, 전북 김춘진 송하진 후보, 제주 김우남 문대립 후보로 선정됐다.

광주는 후보자들 간에 단일화 결정이 진행되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경선후보자와 경선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경남은 김경수 후보로 후보자들이 단일화를 하였지만, 추후 소정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정복기자

양승조, 10차 걸친 공약발표

로 정책선거 행보 이어가



충남도지사에 출마 선언한 양승조 의원이 지난 1월 18일, 제1차 충남도지사 공약을 발표한 이후 3일, 제10차 문화예술공약까지 발표하면서 정책 중심의 선거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공약발표에 앞서 제주 4.3 희생자와 아산 순시소방관에 대한 묵념을 한 양승조 의원은 먼저 “문화예술의 보편적인 확대는 지역적, 경제적, 세대적 격차에서 발생하는 문화소외를 극복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며 나아가 노동과 여가의 균형을 실현함으로써 충남의 미래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킬 수 최고의 방안”이라며 공약 발표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양승조 의원은 “도립미술관 건립은 도민의 정신적 에너지를 결집하고 나아가 충남도민의 자긍심을 높여 대한민국 문화 중심지로 도약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7개의 광역도 중 경기, 전북, 전남, 제주, 등 4곳에는 이미 도립미술관이 건설되어 있다. 이미 많이 늦은 만큼 시급히 도립미술관을 건립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대전시의회, 제237회

임시회 폐회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경훈)는 3일 제237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15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 37건과 결의안,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 등 모두 43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지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대전광역시장과 교육감에게 촉구했다.

또한,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대전 의료원 설립 추진 특별위원회,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인구증가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가 보고됐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청소년 수련미술을 방문하여 대강당 증축 현황 등 시설을 점검 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서는 대전 이문고와 느티나무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환기자

박경귀 예비후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소각장 반대 시위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반대시위에 주민들과 함께 해



생존권이 걸렸다. 우리 미래세대의 건강권이 걸려있다. 산업폐기물 소각장은 대규모 아파트 인근에는 절대 설치되어서는 안된다”며 폐기물 소각장 건설을 강력히 반대했다.

한편, “우리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아산의 환경정책이 나와야만 클린 아산을 지켜낼 수 있다. 아산 관내에 환경 유해시설의 무분별한 입지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아산시민의 환경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날 금강유역환경청 반대시위

에는 음봉 포스코아파트, 삼일아파트, 탕정 트리밸리스아파트 등 주민 200여명이 모여 “주민과 우리의 미래세대인 아이들을 위해서 폐기물 소각장의 건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폐기물 소각장 건설을 끝까지 막아낼 것을 결의했다.

박 예비후보는 “아산시에서 참여자치를 구현하고자 한다. 참여자치는 시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으로만 구현되는 것이 아니다. 시장이 시민의 뜻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비로소 구현되는 것”이라며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박정현 “대전권 상권확장 계획 즉각 중단해야”

골목상권 위협하는 유통공룡 신세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박 예비후보는 “신세계가 자체 브랜드 마케팅 전략으로 상권 확장에 나서고 있는 것은 그렇잖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몰염치한 행위”라며 “노브랜드의 저가상품을 일컬어 ‘동네 상권 파멸 계획’은 이제라도 즉각 중단돼야 함은 물론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애초 9개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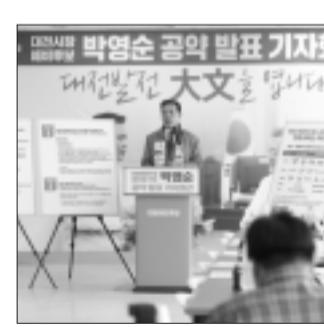
이던 신세계 ‘노브랜드’ 상품이 현재 900여개 품목까지 늘었다”고 전제,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중소마트와 전통시장의 매출이 감소, 골목상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예비후보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을 저지할 수 있도록 주변 상권에 대한 사전영향 평가제를 즉시 도입하고 의무화 일제 확대 시행하는 동시에 동네슈퍼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환기자

“경쟁력 강한 글로벌 도시로 키우겠다”

박영순 대전시장 예비후보, 첫 정책공약 발표회



등이다.

‘철도산업 수퍼 클러스터 구축’은 광역교통의 허브인 대전과 세종, 충북을 연결해 동북아 철도 물류네트워크 중심으로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전조기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는 “철도산업의 필수 요건인 ICT(정보통신기술) 및 기계, 신호, 부품소재 등 최첨단 기술 기반을 갖춘 대전의 장점을 살려 철도 R&D와 전문인력 양성에 투자한다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대전시정이 되면 대전, 세종, 충북 등 충청권 지역에 공식 제안해 충청권 공동상생발전전략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전의 규제발전과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대덕구 세종, 충북 등 충청권 지역에 공식 제안해 충청권 공동상생발전전략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철도산업 수퍼 클러스터 구축 ▲제2대덕밸리 조성, 글로벌 기업 유치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 ▲아시아 창업 선도도시 및 에너지 자립 스마트 도시 실현

책연구소를 비롯한 벤처기업에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첨단산업 생산기지 역할로 대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전망이다.

박 후보는 “제2의 대덕밸리에는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일정 규모 투자와 지역인재 70% 이상 고용, 법인의 대전 주소화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글로벌 기업에는 30년간 1만원에 부지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파격 조건을 제시하는 등 기업유치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동서 격차 없는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도시공동체’를 위해 박 후보는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의지도 공약에 담았다. 도시재생뉴딜정책은 주민주도형 ‘원도심 도시재생’으로 개발이익을 주민들이 창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구·중구 등 원도심 통과 8개 역세권 주변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동주택 ‘드림하우징(Dream Housing)’ 조성, 공급 등을 주로 내용으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정복기자

복기왕 예비후보, 시민의 삶 바꾸고 소통하는 도지사 될 것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가 3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분권 시대 도지사로서 실제 현장에서 시민의 삶을 바꾸고 소통하는 도지사가 되겠다며 천안시 4대 발전 공약을 발표했다.

복기왕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은 천안이 대한민국의 경제중심, 전국 최고의 역동적 도시로 도약할 희망을 주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선도지구 및 클러스터 조성 ▲국립죽산자원개발부지(종죽장)와 충부농죽산물류센터 개발 ▲버스공영제 단계적 실시 등에 대해 우선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원도심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4차 산업혁명 선도지구 및 클러스터 조성

“4차산업 교육혁신 역점... 글로벌 명품 대학 이끌겠다”

국립 한밭대학교 총장 후보 유병로 교수

<건설환경공학과>

오는 4월 12일 국립 한밭대학교 총장 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선거는 직선제로 치러지면서 예전에 비해 후보들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앞으로 향후 4년간 한밭대학교를 이끌어갈 총장을 선출하는 선거이기에 학내 구성원은 물론 지역 사회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전투데이는 국립 한밭대학교 총장 선거에 출마하는 5명의 후보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서면 인터뷰 질문지는 공동으로 전달됐고, 답변이 도착한 순서대로 게재하기로 한다.

<편집자 주>

<유병로 교수= 충남 천안 출생, 고려대 정책학석사, 충북대 공학박사, 현) 한밭대 건설환경공학과(토목·환경·도시 전공) 교수,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한국워리어인전기술원 이사, 전) 한국과학기술원(KIST) 연구원, 대전과학기술대 교수, 기획실장, 대전발전연구원 원장, 전국시도발전연구원협의회 의장, 한국수자원공사 이사, 행복도시건설진진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건설심의위 위원,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 위원, 산림청 중앙산자관리위원회 위원, 해수부 해운항만정책위 위원, 한국환경기술학회 회장, 대전국민주권회의 상임의장, 환경운동연합 대의원, 정책위원장, 과학기술융합포럼 공동대표, 한국장애인녹색환경연합 이사.>

▲총장 선거에 출마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저는 우리대학을 ‘4차산업 교육혁신 선도대학’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세종캠퍼스 구축을 통한 글로벌 명품대학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국립한밭대학교는 90년 넘긴 유서 깊은 대학으로 산학협력을 잘하는 학교로 오랫동안 국내외에서 명성을 끌고 있어 왔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의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을 통해 혁신산업을 성장시키려는 대학지원사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때 저는 한밭대의 교육연구처장, 연구산학협력처장, 산학협력단장(초대)으로서, 총청 권에서 최대의 정부지원 사업을 유치하여 대학발전과 산학협력의 모델을 구축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도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육성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로 둥반성장하는 것을 국정 핵심 목표로 삼고 있어, 저는 총장으로서 제 경험과 철학을 펼쳐 구성원들과 함께 대학과 지역 사회의 상생발전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한국대학의 혁신모델 수립에 기여하고자 출마하였습니다. 현재 모든 지방대학은 학령기 인구의 급감과 수도권의 고밀 집중화, 정부의 구조조정 압력으로 큰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한밭대도 대학의 정원감축, 재정지원 부족 등의 외부요인과 일반적 전환 후 대학의 특성화와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해 겪는 내부적 혼란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학의 구성원들은 외부로부터의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급변하는 사회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강소형 혁신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경험 많고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총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 내 다양한 보직 경험과 대전발전연구원장, 한국수자원공사 이사, 대전교총 회장 등 외부기관의 행정경험,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등 지역 사회와 정부부처의 각종 정책자문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에 빠진 대학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선장의 역할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한밭대학교는 지난해 개교 90주년을 맞아 제2의 도약을 선언했는데요. 총장 후보로서 향후 한밭대학교의 마스터플랜은?

“세종캠퍼스의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우선 세종시에 연구 및 행정 중심 캠퍼스를 확보하여 세종·덕명·대덕을 잇는 트라이앵글 캠퍼스를 구축하여 특성화와 시너지를 통한 상생발전 단계를 거친 후, 다음 단계로 세종시의 거점국립대학으로 자리매김하는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들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향후 대학 생존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대입 지원을 학령기 학생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대학을 특성화하고 국제화해야 합니다. 4차 산업 교육에 가장 앞선 4차 산업 교육 혁신 특성화 대학을 만들겠습니다. 또 베트남, 중국, 일본 등의 산업체, 대학과 연계하여 기업맞춤형 국제 계약 학과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밭대는 산학협력을 잘 해온 특성화된 대학으로서 평생 교육에도 힘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후보님의 공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대학의 재정 확보와 특성화가 급선무입니다. 첫째, 부족한 정부의 재정 지원 문제를 해결하여 국립대 평균 수준의 교수와 직원 수, 재정을 확보하겠습니다. 산업 대 시절에는 주·야간 학생수가 유사해 시설과 인력을 주·야간 충복 활용할 수 있었으나 현재 대부분의 강의는 주간에 운영되고 있어 재정과 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 정부의 일반 재정 지원도 거점국립대의 7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시대가 요구하는 우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인력을 우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4차 산업 교육 혁신 선도대학’으로 특성화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가상현실 등 지능화된 기계화 시대가 이미 현실화되었지만 한국에는 미국의 올린 공대처럼 4차 산업 교육 시스템을 갖춘 대학은 없습니다. 교육부는 대학별 1개 프로그램을 지원하려 하지만 전공간의 융복합이 필요한 신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하므로 일부 학문분야에만 국한하여 적용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공학분야는 물론 모든 학문분야에 AI 기반 정보화 기술이 융·복합되어 4차 산업 교육 과정으로 개편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밭대는 규모가 작아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공학과 기술 관련 학과 중심의 강소형 대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의 대부분 학과를 대상으로 4차 산업 시대가 필요로 하는 융·복합 전공, 학생의 자율선택 전공 운영 및 능동적 참여 중심의 학습 방식, 프로젝트 기반 실습 위주의 학습(PBL)이 가능하도록 혁신하기에 매우 수월하며, 이미 많은 요소들을 현재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한밭대학교는 지난해 개교 90주년을 맞아 제2의 도약을 선언했는데요. 총장 후보로서 향후 한밭대학교의 마스터플랜은?

“세종캠퍼스의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우선 세종시에 연구 및 행정 중심 캠퍼스를 확보하여 세종·덕명·대덕을 잇는 트라이앵글 캠퍼스를 구축하여 특성화와 시너지를 통한 상생발전 단계를 거친 후, 다음 단계로 세종시의 거점국립대학으로 자리매김하는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상생형 산학협력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대전시와 세종시, 대덕특구 연구기관과의 협업적 대학 운영을 통해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연구 및 기술 사업화, 지역 발전 기여 활동을 추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이 되도록 시스템을 혁신하겠습니다. 대학이 선제적으로 손을 내밀어 지역 자체, 연구소, 기업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상호 보완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교수와 학생의 창업과 취업, 산학 협력, 현장 실습, 지역 문제 해결 연구, 공용 기숙사는 물론 대학 접근 통행 버스 노선 확충, 대전시 공공 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문제 등 지역 자체 기업과 협력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선진 외국의 산업 도시는 대부분 대학과의 산학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해 왔습니다. 대전은 세계적 수준의 대덕특구가 있지만 지역 연계성이 낮아 산학 협력을 잘하는 한밭대가 앞장서서 대전·세종·충청 지역과의 협력 체계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넷째, 세종캠퍼스를 확보하여 세종·덕명·대덕의 트라이앵글 캠퍼스를 구축하고 종강기적으로 세종의 거점국립대로 자리매김하도록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기업과 산업시설의 급증으로 산학 협력 수요가 큰 세종시에 한밭대의 우수한 산



학 협력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4차 산업 현장 중심의 연구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지역 기업과 협업하며, 응용 기술 중심의 고급 인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기술자를 양성하겠습니다. 종강기적으로 세종시가 필요로 하는 공무원 및 공공 인력 교육을 위한 정책 대학원 및 사회 과학 분야의 교육 인프라 확충, 캠퍼스의 단계적 이전을 통하여 행정 수도를 대표하는 거점 국립대학으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대학 민주화가 절실히 합니다. 종강 중심의 소통이 부족한 권위적 리더십으로는 구성원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부총장제를 도입하여 학사 및 연구 업무를 분담하고, 학과와 단과대학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 체계로 개선하겠습니다. 종강과 대학 내 구성원 그룹 학생 단체, 직원 단체, 교수 단체와의 정례적인 대회의 장을 마련하고 민주적인 소통과 의사 결정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종강과 교수 평의회 회장에게 교수 회의의 의장권한을 공동으로 부여하여 민주적인 의사 결정 방식을 도입, 소통과 섬김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연구하기 좋은 대학,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만들겠습니다.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연구자 중심의 편리한 제도로 만들고, 연구 보조 인력 확보 및 대학원 활성화를 위한 연계 혁신 방안을 마련하며, 기술 사업화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수한 교수를 확보할 수 있

는 대덕특구 그리고 지역 사회와 함께 협력해 왔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입니다.”

▲세종시로의 이전에 대한 소견은.

“세종캠퍼스의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우선 세종시에 연구 및 행정 중심 캠퍼스를 확보하여 세종·덕명·대덕을 잇는 트라이앵글 캠퍼스를 구축하여 특성화와 시너지를 통한 상생 발전 단계를 거친 후, 다음 단계로 세종시의 거점국립대학으로 자리매김하는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현재 국립대 통폐합 문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밭대도 인근에 위치한 충남 대와 공주대와 통합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국립대와의 통합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통합은 천천히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한밭대는 그동안 이공계 중심 대학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아이에 걸 맞는 학과 신설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4차 산업 교육 혁신 선도대학’으로 특성화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가상현실 등 지능화된 기계화 시대가 이미 현실화되었지만 한국에는 미국의 올린 공대처럼 4차 산업 교육 시스템을 갖춘 대학은 없습니다. 교육부는 대학별 1개 프로그램을 지원하려 하지만 전공간의 융복합이 필요한 신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하므로 일부 학문분야에만 국한하여 적용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공학분야는 물론 모든 학문분야에 AI 기반 정보화 기술이 융·복합되어 4차 산업 교육 과정으로 개편이 필요합니다. 한밭대는 규모가 작아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공학과 기술 관련 학과 중심의 강소형 대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의 대부분 학과를 대상으로 4차 산업 시대가 필요로 하는 융·복합 전공, 학생의 자율 선택 전공 운영 및 능동적 참여 중심의 학습 방식, 프로젝트 기반 실습 위주의 학습(PBL)이 가능하도록 혁신하기에 매우 수월하며, 이미 많은 요소들을 현재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과 신 교육 과정 개편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4차 산업 교육 특성화 대학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후보님의 교육 철학은.

“교육은 학습자가 평생 살아가는데 기본이 되는 가치관과 사회 구성원으로의 역할 역량을 찾아 키우는 것입니다. 어떤 교육 과정과 교수자로부터 학습되느냐에 따라 인격 형성과 사회적 역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교육은 표준화된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이었다면, 4차 산업 혁명 시대 교육은 학생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워가도록 도와주는 경험과 사례 기반의 교육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교수자가 모범적 실천을 보이는 문화를 키워가야 합니다.”

▲한밭대 구성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대학은 재정 부족과 정체성 미흡으로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수한 교육·연구·역량이 있어 앞으로 전략적 방향성을 기반으로 집중적으로 혁신한다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4차 산업 교육 혁신 선도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제 대학 발전을 위한 통찰력, 지역 사회 및 정부와의 협업 능력, 준비된 행정 관리 경험 및 정치·법률·부지·현장·인력·자원·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할 수 있는 혁신적인 협업 활동을 늘리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품격을 높이고 상생해야 합니다. 한밭대학교는 늘 대전과 세

●정정●

학교폭력예방 역량강화 연수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4일
오후 2시 대전
효문회관에서 열리는
'2018 학교폭
력예방 학교장 역량강화 연수'
에 참석.

제50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식



김경훈 대전시
의회 의장= 4
일 오후 3시
대전시청 대
강당에서 열
리는 제50주
년 예비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

브런치 토크 행사 개최



한현택 동구청
장= 4일 오전
10시 30분 동
백실에서 직
원과의 브런
치 토크 행사
를 개최.

부사동 빈집정비사업지 방문



박용갑 중구청
장= 4일 오후
2시 부사동 빈
집정비사업지
를 방문.

새봄맞이 대청소



박수범 대덕구
청장= 4일 오
전 10시 30분 오정동 효성
공원 일원에
서 열리는 새
봄맞이 대청소에 참석.

국가안전대진단 현장점검 실시

이재관 대전광역시 시장관련대행은 3일 오후 유성구 유스호스텔 청소년 수련시설을 현장 방문해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사회전반 시설물의 결함·위험요인 발굴 개선을 위해 지난 2월 5일부터 시작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상황을 확인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에 나선 이 시장관련대행은 유스호스텔 관계자로부터 운영현황과 시설물의 안전 관리 대책을 청취하고, 시·구 관계공무원, 유관기관 전문가와 함께 시설물의 균열 등 구조적 안전성과 전기·가스·소방 시설물의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대전시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시설은 총 8,400여 곳으로 이날 현재까지 7,917곳(94.3%)을 점검하여 116곳 현지시정, 219곳은 자체 예산 및 재난 안전특별 교부세 등을 활용하여 신속히 보수·보강 조치하여 재난위험요소를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현장 점검 실명제, 공무원·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 절차를 통하여 점검의 책임성과 충실했음을 강화하였다.

성실·유공납세자 1055명 선정

대전시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에 이바지 한 성실납세자 825명과 시 세입재정 운영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230명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성실납세자는 1월 1일 기준 최근 5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연간 5건 이상 500만

컨택센터(콜센터) 전문상담사 교육

市, 11월까지 청년 미취업자·경력단절 여성들 취업 연계 진행

대전광역시는 컨택센터(일명
콜센터)에서 근무할 전문상담사
인력양성 교육을 오는 11월까지
연중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컨택센터 교육은 신규양성과정(260명)과 중간관리자과정(240명)으로 구분해 차수별로 진행되며 대전시에 거주하면서 컨택센터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다면 누구나 가능하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며 종식비와 교재를 제공하고 교육이 끝나면 교육 수료증을 발급해 교육이 수후 바로 취업이 가능하다.

신규양성과정의 교육시간은 기초부터 실무까지 2주(10일) 동안 60시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4월부터 11월까지 9차수로 차수별

30명씩 선착순 모집이다.
또한 대전시는 컨택센터에서 근무하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중간관리자 과정을 개설해 조직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코칭스킬과 자기계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중간관리자 교육은 4월부터 11월까지 8차수 교육이 실시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시 소재 컨택센터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현재 1만7000여 명으로 전국 최고수준"이라며 "컨택산업 관련 기업들이 대전을 선호하고 있는 만큼 우리지역의 청년 미취업자와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호 기자



토요일밤 신나는 뿌리공원으로 '고고'

중구 아관경관조명으로 빛나·매월 버스킹 공연 개최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뿌리공원에서 '신나는 버스킹레이'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수려한 자연환경에 흐려한 야간 조명시설이 더해진 뿌리공원에서 매월 첫째·셋째 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개최되며 7일 첫 공연이 시작된다.

연간 150만명이 찾는 세계 유일의 효 테마공원인 뿌리공원을

지역 예술인들의 문화 감성과 낭만으로 물들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공연은 전통미당극, 마술쇼, 통기타 그룹 공연 등 매월 다른 주제와 장르로 펼쳐질 예정이다.

뿌리공원은 지난해 개장 20주년을 맞아 LED 야간경관 조명 설치와 수변무대 등 각종 시설 개선과 스낵바 개점 등으로 대전의

대표 명소로 손꼽히고 있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야간에 빛나는 뿌리공원을 찾은 관람객들께 버스킹 공연을 선보여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길 바라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주민참여형 문화콘텐츠 발굴과 뿌리공원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선기자



동구, 벚꽃 주중 만개... 이번 주말 최고절정

대청호반길·남간정사 벚꽃 이번 주 활짝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꽃의 계절 봄을 맞아 산수유, 개나리, 진달래, 벚꽃들이 활짝 피기 시작한 가운데 이번 주를 기해 각종 벚꽃들이 최고의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요 노선으로 판암지하차도~회인선 입구까지 이어지는 옥천로(5.48km)와 가양비래공원

(4.9km) 구간, 옥천으로 이어지는 경부선 폐고속도로(6.8km), 가양동 더퍼리길에는 주중 만개하여 많은 주민들이 벚꽃을 만끽하고 있다.

또한 판암근린공원, 가양동 남간정사, 세천유원지 등 동구 곳곳에 이번주 내에 최고 절정을 이뤄 우리 지역을 찾는 많은 방문객들

이 추억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대청호반길의 회인선 26.6km 구간은 전국에서 가장 긴 벚꽃 길로서 국립수목원에서 선정한 '아름다운 벚꽃길 20선'에도 선정되었고 충동입구에서 직동까지 이어지는 충동선 11.6km 구간은 드라이브 코스로 가족, 연인들의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오는 7일 대청호반 벚꽃길을 무대로 2018 뮤지컬 마리끌레트 대회와 기양동 더퍼리길에서는 흥룡마을 가마들이 대연행사를 각각 개최되어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아름다운 벚꽃 명소들이 많아 개화 시기에 맞춰 여러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벚꽃이 지기 전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즐기시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쌓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영호 기자

감면과 적금 환전수료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유공납세자에게는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혜택이 추가로 주어지고 시장표창도 수여된다.

대전 시 황규홍 세정과 과장은 "2013년 관련 조례 제정 이후 1,354명의 성실 및 유공납세자를 빌려주기 원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우대 시책 빌려주기 원했다"고 밝혔다.

성실·유공납세자에게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신규 대출이자

소비 촉진을 위해 3일부터 11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옛 충남도청 앞마당에서 열리며, 대전 및 인근지역 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과일, 채소, 축산물 등 100여개 품목이 시장가격보다 20~30% 저렴하게 판매된다.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한 화요직거래장터는 충남도청 앞마당에서 이전에 따른 도시 공동화 해소와 농산물

에 따른 자동화 확대로 삶의 편의성과 안전성이 높아져 향상될 수 있으나 노동의 본질 변화, 양극화, 프라이버시 침해, 해킹 등 역기능 또한 수반되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특강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서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대민서비스 개선, 기술혁신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구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봉관 기자

서구,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자체 대응전략 특강 열어

공직자 능동적 대처방안 모색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구청 대강당에서 직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지자체 대응전략' 이란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대전시 소재 컨택센터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현재 1만7000여 명으로 전국 최고수준"이라며 "컨택산업 관련 기업들이 대전을 선호하고 있는 만큼 우리지역의 청년 미취업자와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유성구 보건소 소장 최경만은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7개 초등학교 6학년 620명을 대상으로 금연전문강사를 통해 흡연예방 체험형 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 과정은 ▲담배의 유해성 알기, 식물성장 체험 ▲우리몸 장기 체험그리기 ▲담뱃갑 그리기 ▲금연 팔찌 만들기 ▲금연 골든벨 등 5차시로 구성했다.

또한 금연 전문강사의 흥미진진한 강의와 흡연자의 망가진 폐 모양이나 사진을 보고 아

이들이 흡연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자연스럽게 느끼도록 유도한다.

강의 후에는 금연 골든벨, 금연 서약서 쓰기를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비규범화 흡연예방 교육, 금연동아리 결성, 금연교실시범학교지정 등도 관련기관과 협의해 추진한다.

유성구는 그동안 건강도시 조성 및 흡연의 인식개선변화를 위한 사업들을 꾸준히 전개해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유성구 주민의 흡연율이 16.4%로 전국 21.2%, 대전광역시 20.8% 보다 낮게 조사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조기 교육이 꼭 필요한 분야가 흡연예방 교육이고 지난해에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가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 대상 금연교육을 확대하고 주민과 함께 흡연의 폐해를 알려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성구는 그동안 건강도시 조성 및 흡연의 인식개선변화를 위한 사업들을 꾸준히 전개해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유성구 주민의 흡연율이 16.4%로 전국 21.2%, 대전광역시 20.8% 보다 낮게 조사됐다.

유성구는 그동안 건강도시 조성 및 흡연의 인식개선변화를 위한 사업들을 꾸준히 전개해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유성구 주민의 흡연율이 16.4%로 전국 21.2%, 대전광역시 20.8% 보다 낮게 조사됐다.

이번 점검은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에 참석한 임찬수 부구청장은 "안전을 우리 대덕구의 핵심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로 촘촘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는 관내 재난취약시설의 안전관리실태를 사전 점검해 대규모 피해에 선제 대응하고자 지난 2월 5일부터 오는 4월 13일 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을 진행 중이다.

김태선기자

NAVER 들어보세요! 네이버스토리
'대전투데이'를 검색하세요. 검색



도·농상생 화요직거래장터 개장

농협대전본부, 11월 27일까지 舊 충남도청 앞마당서 열려

농협대전지역본부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도시 소비자들을 위한 대전 및 인근지역 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과일, 채소, 축산물 등 100여개 품목이 시장가격보다 20~30% 저렴하게 판매된다.

특히 3일 개장식에서 전용석 농협 대전본부장은 "복잡한 유통 구조를 거치지 않고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직거래장터를 통해 농업 인에게는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해 주고 도시민에게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해 줌으로써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농협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승병관 기자

올해 8240개 일자리 창출 목표

서산시,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공시... 공공부문 7140개·민간부문 1100개

서산시가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를 8240개로 정했다.

서산시는 올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을 포함해 8240개 일자리 창출, 고용률 68%, 취업자수 9만 3300명 달성을 위한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을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에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 공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주민에게 제시하는

‘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따라 이뤄졌다.

재정지원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은 총 7140개다.

직접일자리를 4531개 창출하는 한편, 지역실업자훈련과 세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 훈련 및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266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계획이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과 맞춤형 취

업지원 등의 고용서비스 분야에서 2296개, 고용장려금 분야에서 2개, 청업지원 분야 45개의 일자리를 증가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부분에서는 기업 등 유치, 신설 및 확장으로 11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완섭 시장은 “양질의 일자리가 넘치는 서산, 일하기 좋은 도시 서산으로 만들기 위해 기업과 시민들과 함께 노력

하겠다.”며 “청년 취·창업 지원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민선6기 일자리 창출 목표인 35000개 중 83%(2만 8986개)를 달성했다.

전년도 고용률은 67.7%로 목표 대비 3%가 증가했고, 취업자 수는 목표 대비 800명 늘어난 9만 700명으로 나타났다.

서산=김정한기자



2018 대전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열려

대전시 피부미용등 36직종 298명·세종시 용접등 7직종 37명 참가

대전광역시가 주최하는 숙련기술인들의 대축제, 2018년 대전광역시 기능경기대회가 4일부터 9일까지(6일간) 충남 기계공고 등 5개 경기장에서 일제히 막이 오른다.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능경기대회” 개회식이 4일 오전 10시 30분 충남 기계공고고등학교에서 “김백수” 대전시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설동호” 대전교육감, “이명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각급 기관장, 선수, 입원,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막된다.

대전광역시 기능경기대회는 피부미용 등 36개 정식직종과 아울러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시연행사도 함께 열린다.

피부미용 등 36개 정식직종에는 298명의 선수들이 그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루게 되며, 그 외 자수분야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경연이 펼쳐진다.

또한 드론(헬리콥) 비행, 시범과 헨드마사지, 네일아트, 타투 등 다채로운 문

화·시연행사도 열려 경기장을 찾는 대전 시민들에게 다양한 숙련기술 체험의 기회와 풍성한 볼거리 제공한다.

한편 대회 마지막 날인 9일 오전 10시 30분 충남기계공고 강당에서 입장자에 대한 시상식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대전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입상 선수에게는 상장과 메달 수여 및 상금이 지급되며, 오는 10월 전라남도에서 개최되는 제53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대전 광역시 대표선수로 참가하게 된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주최하는 숙련기술인들의 대축제, 2018년 세종특별자치시 기능경기대회가 4일부터 9일까지(6일간) 세종하이텍고등학교에서 일제히 막이 오른다.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능경기대회” 개회식이 4일 오전 10시 30분 세종하이텍고등학교에서 “이준희” 세종시장, “최교진” 세종교육감, “고준일” 세종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각급 기관장, 선수, 입원,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막된다.

문의사항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기능경기위 원회 사무국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진장학회 345명에게 장학금 전달

현대제철, 장학금 5억 원 기탁해 인재육성 동참

(재)당진장학회는 3일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장학회 임원과 장학생, 학부모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장학증서 수여식에서는 장학생 선발 기준에 따라 선발된 중·고등학교 특기 장학생 8명과 고등학교와 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특별장학생 73명, 고등학교 및 대학 재학생 중 성적이 뛰어난 우수 장학생 90명을 비롯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고·대학 복지장학생 115명과 신성대 복지장학생 50명이 장학금을 받았다.

또한 지난 2011년부터 성단 선생 유지를 위하여 지급해 오고 있는 성단 중·고등 장학생 9명도 이날 장학증서를 전달받아 345명의 장학생에게 총 4억 9750만 원의 장학증서가 전달됐다.

특히 이날 장학증서 수여식에 앞서 진행된 장학금 기탁식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장학회에 매년 5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해 오고 있는 현대제철이 올해도 변함없이 5억 원을 기탁하며 지역인재 육성에 동참했다.

수여식에 참석한 김홍장 이사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여러분들은 자신의 미래와 당진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 더욱 정진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재)당진장학회는 지역인재 발굴 육성과 교육발전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3년 설립됐으며, 2004년부터 올해까지 관내 학생 5222명에게 총 65억 29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염치읍 대동리 자원 재활용 앞장

아산시 염치읍 대동리 이장 체희종, 새마을녀지도자협의회장 이기은, 임목자 마을주민 30여 명이 2일 각 가정에서 1년 동안 보관하고 있던 재활용품인 공병, 페트병, 캔, 고철, 농사용 폐비닐(10톤) 등을 마을회관으로 옮겨와 공동으로 분리작업을 실시했다.

재활용품 분리작업은 22년째 이어져 오는 것으로 이번에 모인 재활용품은 아산시 재활용센터 및 자원재생공사에서 전량 수거했다.

분리수거를 통해 얻은 수입금은 마을부녀회 자금으로 조성해 마을 어르신을 위한 경로잔치, 경로당 반찬 비용 및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임목자 부녀회장은 “매년 마을주민이 함께 분리수거를 시행하나 마을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일도 없고, 마을이 항상 깨끗함을 유지한다. 덤으로 수익금을 마을어르신과 불우이웃을 위해 사용하니 보람도 배가 된다”고 말했다.

마승만 염치읍장은 “적극적으로 재활용 분리수거에 참여해 주신 마을주민들께 감사하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활용 분리수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中企 65% “청년 일자리 대책(3.15)·청년 고용절벽 해소 도움될 것”

중소기업 청년고용 확대 위해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완화” 가장 시급

3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중소제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 조사’에서 중소기업 65%는 청년일자리 대책이 청년 고용절벽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노동 현안 과제로는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를 가장 많이 응답했고, ‘야당과 충분히 협의·조정 후 편성’(28.7%), ‘잘 모르겠음’(11.8%)의 순으로 응답했다.

응답기업의 32.3%는 올해 상반기에 청년 채용 의사가 있다고 답했으며, 미정인 기업이 39.3%, 채용 의사 없는 기업은 28.3%로 조사됐다.

상반기 청년 채용 의사가 있는 업체들

은 평균 2.9명을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노동 현안 과제로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완화’(47.7%)

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청년층 유입을 위해 중소기업이 개선해야 할 분야(과수 응답)에 대해서도 ‘임금수준 개선’(85.3%)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한편, 중소기업은 고용창출 여력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 성장 방안으로 ‘정책 금융(산은, 수은) 중소기업 전담화’(52.3%), ‘중소기업 공공구매 전용 보증 제도 지원 확산’(40.7%) 등이 효과적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계는 기종별로 최대 3일까지 빌릴 수 있으며, 사용료는 청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에 의거 농기계 구입가격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 농번기 영농에 큰 도움

청양군, 농번기에는 토요일에도 임대사업 운영 편의 도모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농가경영비 절감과 영농의 품질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주말에도 문을 열어 농번기를 맞은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본소와 동부지소에서 농번기인 4~6월, 수확철인 10~11월에는 토요일에도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한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은 요즘 과수 나무를 힘들이지 않고 편리하게 전지·전정 할 수 있는 휴대용 전동기기, 쟁기, 퇴비 살포기, 관리기, 잔기지파쇄기, 농용굴삭기 등을 빌려 가거나 예약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기계는 기종별로 최대 3일까지 빌릴 수 있으며, 사용료는 청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에 의거 농기계 구입가격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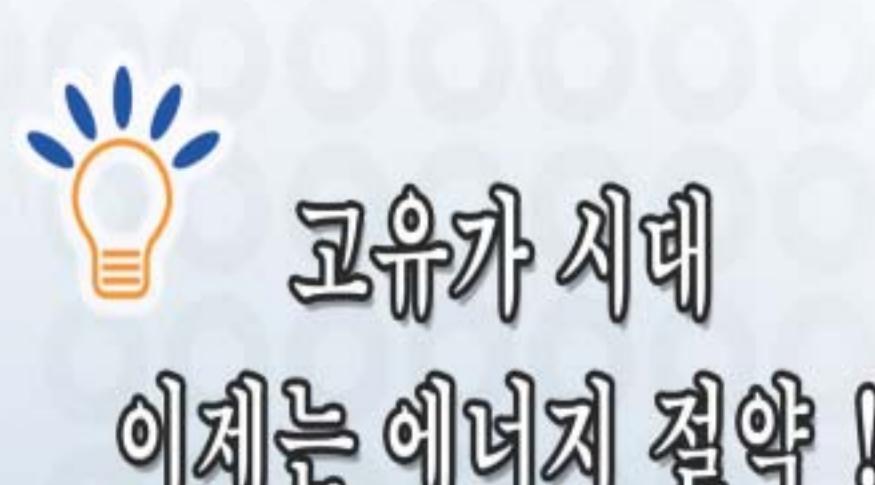
다르다.

농기계 기종별로 6000원에서부터 농기계 구입가격의 2%의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 및 국민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양군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한 예약도 가능하며, 농기계를 임대할 때 농업인이 안전하고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작 요령과 작업 방법, 안전요령 등을 교육하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영농의 편리성을 증대하고 농기계 구입비용을 절감해 영농현장 중심의 고품격 농업기술 보급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에너지 절약

Energy Efficiency

에너지 절약

2018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위촉식

중구, 어린이집 급식·위생·건강·안전 등 모니터링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3일 청사 구민사랑방에서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된 10명의 모니터링 단은 부모와 보육전문가 2인이 1조로 팀을 이뤄 이달부터 연말까지 어린이집을 방문해 영유아의 건강과 급식, 위생, 안전 등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위한 조언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박용갑 청장은 "보육 발전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

김태선기자

마음으로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며,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며 위촉장을 전달했다.

한편 2013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중구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 단은 1년의 위촉기간동안 매년 150여 개의 지역 어린이집을 방문해 급식·건강·위생·안전 등을 모니터링해 건강한 보육문화 조성에 기여해 왔다.

김태선기자

항공 인력양성 위한 업무 협약식

세한대학교·㈜에어필립 등 뜻모아 협약 체결



세한대학교(총장 이승훈)는 지난 2일 전남도청 회의실에서 항공 인력양성을 위한 산·학·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업무협약은 무안국제공항이 개항 10년 만에 인천 국제공항 간 직항로가 열려 전라남도와 주에 어 필립 항공사가 투자유치 협약을 했다.

이에 따라 항공 관련 특성화학과로 손꼽히는 세한대와 초당대 등 5개 기관이 뜻을 모아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협약식에는 이승훈 세한대 총장, 전라남도지사 권한행 이재영 행정부지사, 염일식 주에어 필립 회장, 장영식 무안군수 권한대 행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에어 필립은 무안국제공항에서 인천 국제공항으로 매일 왕

당진=최근수기자

황사, 미세먼지 퇴치엔 맥문동 최고!

청양군, 맥문동의 고품질 생산기반 지원과 홍보 마케팅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주요 소득 작물인 맥문동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고품질 생산기반 지원과 홍보 마케팅에 나섰다.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청양 맥문동은 페결핵과 만성기관지염, 인후염, 향암성, 항당뇨, 특히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한 각종 질환에 방지 턱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근 각종 언론과 TV방송에 많이 소개되고 있다.

지난 20일에도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간 청양 맥문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청양에서도 주 생산단지가 위치한 남양면 재배 포장에서 방송 촬영을 마쳤다.

이원 남양면장은 "앞으로 맥문동을 활용한 음료, 막걸리, 한과, 쿠키 등 다양한 가공상품을 개발해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15일 오전 7시30분 방송되는 TV조선 '내 몸 플러스' 프로그램에 청양 맥문동의 우수성이 소개될 예정이다.

청양=정상범기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뿌리뽑는다”

47개 지방고용노동관 소속 ‘고용보험수사관 본격 활동’

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200여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본격적인 활동을 한다고 3일 밝혔다.

고용노동 분야의 특별사법경찰관은 1953년 근로감독관, 1987년 산업안전감독관 도입 이후 3년째이다. 지난해 12월 관련 법령 개정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그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지속됨으로 확대됨

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이 논의돼 왔다.

고용보험 지원금은 2017년 실업급여 5조 2000억원 등 8조 1000억 원이며, 부정수급액은 전체 지원금의 약 0.5%인 388억 원이었다. 부정수급 행위자도 실업급여 3만 3000명 등 총 3만 5000명이었다. 특히,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하거나 브로커 개임 등 행정변론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부정수급이 매년 증가해 수사권 필요성이 인정돼 왔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TF

를 구성해 고용보험수사관 육성교육, 수사전산시스템 개발 등 준비를 거쳐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고용보험수사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적발이 어려웠던 공모형 부정수급 등은 경찰활동수사에 의해 왔으나 이런 수사권 부여로 독자적인 수사행위가 가능해져 부정수급 적발률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율러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금 환수나 추가징수 등 금전적 불이익 위주에서 형사처벌 가능성

높아짐에 따라 부정수급행위 자체도 현저히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임서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소중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고용보험기금은 꼭 필요한 노동자에게 쓰여 지도록 해야 하므로 고용보험수사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있을 것"이라면서 "사후적발 이외에 부정수급 사전 방지를 위한 행정시스템의 개편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세종시설공단, 체험중심

생존수영교실 운영

세종특별자치시 시설 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은 이번 달 3일부터 11월 말까지 보립수영장에서 글벗초등학교 등 관내 초등학생 약 800여명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생존수영교실은 아이들이 수상재난을 당했을 때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기본 영법, 응급 시 대처 요령, 생존법 등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공단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자구법과 주변 도구를 이용한 구조법, 심장충격기 등을 이용한 심폐소생술 등을 교육하고, 이론보다 체험을 통해 자기 생명 보호능력 강화와 물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세종=김정환기자

이덕훈 총장, 학생들과 소통 나서

한남대, 총장과 함께하는 전체 학생임원 오찬 간담회



한남대는 3일 교내 한남글로벌 센터 2층 무아아트홀에서 총장과 함께하는 전체 학생임원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덕훈 총장은 비롯해 쳐·실장, 행정팀장이 참여해 윤성욱 총학생회장 등 학생 임원 70여명과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함께하면서 허물없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는 대덕밸리캠퍼스

셔틀버스 확대, 일부 건물 엘리베이터 및 냉난방 설비 증설, 학생 취업률 제고 방안 등에 대해 건의와 의견을 주고 받았다. 학교측은 학생들의 건의를 받아들이 시험기간 중 열림실 24시간 개방에 따른 학생편의를 위해 심야 귀가버스를 운영하고, 가로등 점등 시간 확대 및 셔틀버스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정복기자

“취업 말고 창업! 꽃 청춘 찾습니다”

aT, 회화분야 창업 인큐베이팅 참여할 청년창업자 모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회화분야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aTium'과 '플라워트럭' 사업에 참여할 청년 창업자를 모집한다.

'aTium'은 3개 팀을 모집하며, 선정된 팀에게는 양재동 aT센터 내에 꽃집으로 인테리어 된 점포(창업 공간)를 제공, 2개 팀을 모집하는 '플라워트럭'은 이동하며 꽃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랩핑한 1톤 카트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선정된 창업자는 4개월간 주도적으로 꽃집·플라워트럭을 운영하고, 마케팅 기법 등 전문가 멘토링 까지 지원 받으며 직접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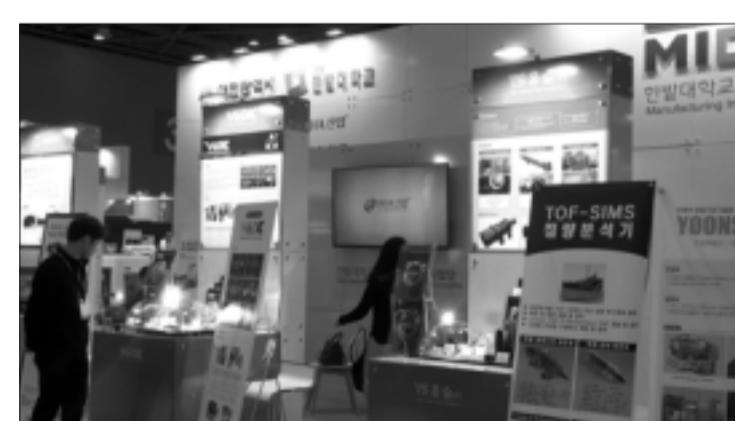
으로 창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이에 aT는 더 많은 회화 관련 창업자를 지원하고자 aTium 매장 기준 2개 팀에서 3개 팀으로 확대하고, 플라워트럭도 1대 운영에서 2대로 확대하는 등 20일부터 4개월간 운영할 새로운 청년 창업자를 찾아나선다.

화훼분야 청년 창업에 도전하고 싶은 청년들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오는 8일까지 aT 회화사업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화훼산업육성TF팀(주소영 사원, 02-570-1814), 송병배기자

지역 기업 'SIMTOS 2018'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

한밭대학교, 지역기업 위한 마케팅 지원 나서



국립 한밭대학교(총장 송하영)가 4월 3일(화)부터 7일(토)까지 5일 간 경기도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되는 '2018 서울국제공작기계전(SIMTOS 2018)'에서 지역기업을 위한 마케팅 지원에 나섰다.

한밭대는 이 전시회에 제조혁신육성사업단 단장 명태식 교수 주관으로 대전광역시 공동관을 설치하고 지역 금속가공 관련 기업의 수출 유망제품 홍보와 바이어 상담, 신규 바이어 네트워크 등을 지원하며, 사업단의 성과들도 함께 전시중이다.

지원대상은 주데데테크, 주윤슬, 주와이엔디케이, 주에너리트, 주한국에어로, 주아하산업 등 6개 기업이다.

한밭대의 이번 전시회 참가지

우리 지역의 주력산업인 금속가공산업의 선순환 사업화 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한밭대는 전시회 기간 동안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와 연계해 신규 매출처 확보와 수출 판로 개척지원, 지역 기업의 신시장 창출을 통한 지역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금속절삭 및 금형 가공장비, 3D 프린팅, 측정기기, 자동화 기기, 로봇, 용접장비, 프레스 등 금형 및 금속가공 산업 관련 최신, 최첨단 기술을 선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이정복기자

꿈·열정·감동의 흥미진진 공주교육



한국폴리텍IV대학 대전캠퍼스

‘참인폴리텍 위탁연수’ 실시

한국폴리텍IV대학 대전캠퍼스(학장 이인호)는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겸비한 기술인 양성을 위하여 4월 2일부터 4월 6일 전문 기술과정 2회 시작까지 참인폴리텍 위탁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위탁연수는 재학생들의 궁극적 미인드를 향상시키고 자발적인 태도 변화를 유도하여 보람찬 대학생활을 비롯하여 사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소양 향상을 중점을 두어 진행된다.

위탁연수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강사를 파견하여 진행하며 1박2일(2년 학위과정), 2박3일(전문기술과정) 동안 ‘참인폴리텍’을 이해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자기개발능력(자기인식), 대인관계능력(역량과 스킬개발) 그리고 자원관리능력(미래설계)의 3단계로 진행되어 자신의 강점을 개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복기자

청명·한식 특별경계근무 돌입

예산소방서,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예산소방서(서장 권주태)가 이달 4일부터 7일까지 4일 간 청명·한식 기간 중 성묘 및 상춘객 등에 의한 화재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청명·한식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했다.

이번 특별경계근무 기간 동안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760여명과 소방차량 등 장비 33대를 동원하여 주요 등산로 및 공원묘지에서 산불예방 캠페인 및 화재예방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소방서장 지휘선상 대기근무 ▲전 직원 비상응소체계 확립 ▲화재예방 캠페인 및 소방 순찰활동 강화 ▲산불대응 태세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유지 ▲의용소방대원 마을당제 역량집중 활동 전개 등이다.

권주태 소방서장은 “청명·한식 기간 중 많은 시민들이 성묘 등을 목적으로 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예방활동 추진으로 산불화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성묘객 및 입산자들의 화재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예산=양성업기자

비응급환자 구급차 이용 자체 당부

청양소방서, 응급환자 피해 보는 상황미연 방지

청양소방서(서장 이일용)는 위급 환자구조용 구급차가 비응급 환자의 무분별한 요청으로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방해하고 있어 비응급환자에 대한 구급차 이용 자체를 당부하고 나섰다.

119구급대는 비응급환자 상습신고로 인해 응급환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비응급환자일 경우 구급차 이송을 거절 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현행 법률 상 비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거절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으나 출동 전 응급 여부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비응급환자의 자발적인 이송요청 자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일용 서장은 “119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이송한다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비응급환자는 구급차 이용을 자체해 달라”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의료처우 향상 위한 업무협약

대전소년원-영훈의료재단 선병원

대전소년원(원장 이영호)은 지난 3일 영훈의료재단 선병원(이사장 선두훈)과 원생들의 의료처우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영훈의료재단 선병원은 대전소년원의 지정 병원으로서 소년원생에게 종합적인 진료체계 구축, 진료편의 제공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지원활동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정상범기자

연포항서 차량 해상 추락 운전자 숨져

태안해경, 정확한 사고경위와 원인 조사

지난 3일 오전 6시 30분경 충남 태안군 균흥면 연포항 선착장에서 트럭 1대가 기드레일을 뚫고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A씨(남, 51세)는 출동한 해경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했다.

오전 06시 38분경 충남 112경유 신고를 접수한 태안해경은 해경구조대와 신진 파출소 순찰팀을 현장으로 급파하여 06시 57분 현장에 도착한 해경구조대가 해상에 추락한 차량내부에서 운전자 A씨를 구조해 태안의료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운전자 A씨는 사망 판정을 받았다. 태안해경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태안=김정한기자

제천 참사 이후에도 짐질방 등 안전관리 ‘미흡’

행정안전부, 국가안전대진단 진행과정 과태료 부과 현황 등 분석 결과

충북 제천 복합 건축물 화재 이후에도 짐질방 등의 안전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현재까지 국가안전대진단 진행과정에서의 과태료 부과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와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3월 28일 기준,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이 실시된 짐질방은 1,341개 소로, 이 중 38.4%에 해당하는 515개 소에서 지적사항이 나타났다.

지적사항은 대부분 스프링클러나 피난도어 등 주변 적재물 비치로 인한 기기 작동 방해 등 경미한 사항으로 현장 시정 등이 이루어졌으며, 사이인 중요한 96개 소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과태료 부과는 대부분 소방시설 관리 불량 사항으로, 화재 경보 또는 스프링클러의 자동 작동 스위치를 의도적으로 꺼 놓은 경우,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방화문 흐손 상태 방치, 범률상 의무화되어 있

는 소방훈련을 미실시한 경우 등이 있었다. 지난 2월 부처 합동* 안전점검에서도 짐질방 등이 밀폐된 공간에 있고 신속한 대피가 어려움에도 화재 경보기를 끄 놓거나 작동하지 않은 사례들이 많았으며, 습기로 인한 화재설비 부식 등 관리 불량이 다수 지적되었다.

특히, 화재 경보기 등 비상방송 설비 설치 기준이 연면적 3,500㎡ 이상의 시설물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중소 짐질방의 경우 설치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항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4월 13일 국가안전대진단이 종료될 때까지 꼼꼼하게 점검해서 우리 사회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라면서, “대진단 이후 비상구 폐쇄·물건적치 등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법·제도, 투자 확대, 점검과 단속, 문화 운동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근절 시키겠다.”라고 말했다.

대덕구 신탄진동, 나눔

텃밭 오는 5일 개장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동장 강동구)이 신탄진동 24-2, 25번지 일원에 28구획의 나눔텃밭을 조성하고 오는 5일 개장한다.

3일 동에 따르면 개장식에서는 분양자들의 친환경농사를 돋기 위해 동영상 교육과 도시농업전문강사를 초청해 다양한 체험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탄진동 나눔텃밭은 도심 속에서 가족 단위로 직접 친환경 농산물을 가꾸면서 구성원의 이해심을 높일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건강한 식단을 만들어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선기자

공주 계룡산 벚꽃축제, 6일 개막해 15일까지 개최

충청권의 대표적인 벚꽃 명소… 이번 주말 절정



충청권의 대표적인 벚꽃 명소인 공주 계룡산 동화사 벚꽃이 2일 꽃 망울을 터트려 이번 주말쯤 절정을 이를 전망이다. 공주시 계룡산 동화사 벚꽃축제 추진위원회 또한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 축제 준비에 한창으로, 오는 6일 벚꽃축제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15일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개막일인 6일 오전 10시 30분부

터 학봉회전교차로 인근 주무대에서 식전공연 및 개막행사, 난타공연, 초대가수들이 출연하는 대한비 쇼 등이 이어지며, 7일부터는 가요제 본선과 죽죽이공연, 특별공연 등이 계속된다. 또 13일부터 15일까지는 철화분청사기 전시 및 체험의 자리가 마련된다.

이 외에도 장관을 이룬 벚꽃 터널 곳곳에 포토존이 마련돼 있으며, 약 1.5km 구간에 조망을 설치해 야간에 동화사를 찾은 상춘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또 동화사 주변으로 계룡산자연사박물관과 학봉리 가마터, 이삼평 기념공원, 상신리 철화분청사기 도예촌 등이 자리해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풍성하다.

공주=정상범기자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계약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희귀화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력우...

장재119안전센터 신청사 건립 추진

올해 11월 말 완공 목표로 착공 들어가



이번 신축사업은 총사업비 19억 5,600만원(도비 29억 7,000만원, 복권기금 16억 6,900만원)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청사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1,956㎡로 소방펌프차 등 장비 3대가 배치될 예정이며 차고, 사무실, 출동대기실, 의소대사무실, 체력단련장 등을 갖추게 된다.

이규선 아산소방서장은 “장재 119안전센터 청사신축으로 장재 지역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질의 소방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랑주기자

배재대, 충청권 유일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 ‘우수등급’

올해 사업에서 현지 청년인재양성 내실 기할 방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 자매대학인 수과누봉대학에 ‘아시아인재·기술협력센터’를 설치했다. 센터는 2021년까지 국고 18억 4,000만원을 지원받아 라오스 청년 인재양성에 매진한다. 배재대는 현지에서 재료분야 산학협력과 의류기술, 학과 교육, 한국어 교육을 병행해 현지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재료분야에선 라오스의 고급 두뇌를 육성 계획이 한창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배재대는 지난해 수과누봉대학에 라오스 최초 재료공학과 설치를 현지 정부에게 허가 받았다. 의류기술과 교육 분야에선 우수학생 2명을 현지 강사로 고용해 양과 쪽·호아빠오를 활용한 천연염색 기술 전파하고 있다. 또 한

국선유·의류봉재 관련 협회·업체와 인력 교류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어교육 분야는 한국어 교육 운영, 한국어·리오스어 대조분석을 통한 현지 맞춤형 한국어 교재를 최초로 개발, 보급했다.

이정복기자

현대해양비축연구원에 주택재개발사업과 함께 공고 제2018-08호

도시및주거환경비법 제71조에 의한 소유자 확인공고

조합명칭	사업지주소	조합장	조합주소	연락처
선평재경비축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339-55번지 일원	임양식	대전광역시 중구 율동동 53-150 3층	(042) 253-6771~2

상기 조합은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공고일 현재 아래의 부동산의 소유자 확인이 협력해 혼란하여 이에 소유자를 찾고자 공고하오니 아래의 해당인은 즉시 해당조합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일로부터 30일까지 신고가 없으면 동 부동산의 강경매각을 원활하고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찾는 사람)

등기상 소유주	등기상 주소	현지내역(대전광역시 중구)				
		동	지번	호수	지목	토지 소유 면적
밀양도	대전 중구 율동동 52-22	율동동	52-22	대	1.00	
예수금	대전 중구 율동동 52-22	율동동	52-22	대	66.10	
송정금	대전 중구 율동동 52-24	율동동	52-24	대	21.90	
회성금	경북경주 시황성로 25-610~25-1500호 (경상동, 경기동, 경화동, 경화동 아파트)	율동동	52-24	대	4.76	
회계원	서울 종로구 광화문로 25-17 (신광동)	율동동	52-24	대	5.15	
길선영	대전 중구 우송로 25-20번 일 11301호 (기숙동)	율동동	52-24	대	11.01	
송우경	전남 광양군 고서면 경성로 56-16	율동동	52-24	대	11.01	
회정원	서울 종로구 광화문로 25-17 (신광동)	율동동	52-24	대	5.15	
송우경</						

국내 매출액 상위 30대 기업 평균연봉 8천300만원

<사람인>조사결과 …‘평균 연봉 1억 이상인 기업 6개사’

국내 매출액 상위 30대기업 직원들은 지난해 평균 8,300만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대표 김 용환)이 매출액 상위 30대 기업 중 급여 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2017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9개사 직원 연봉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직원 평균연봉이 가장 높은 기업은 1인 평균 1억 2,000만원을 지급한 ▲S-O이었다.

뒤이어 ▲삼성전자(1억 1,700만원) ▲SK이노베이션(1억 1,100만원)이 2,3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GS칼텍스(1억 800만원), ▲SK텔레콤(1억 600만원), ▲LG상사(1억, ▲기아자동차(9,300만원), ▲현대자동차(9,200만원), ▲삼성생명(9,100만원), ▲LG화학(9,000만원), ▲삼성물산(9,000만원)이 나란히 10위 안에 들었다.

그렇다면, 성별에 따른 연봉의 차이는 어떨까?

남녀 직원간 전체 평균 연봉을 분리 공시한 기업(29개사)을 살펴보니, 지난해 남성 직원의 평균 연봉은 9,000만원, 여성 직원은 6,100만원이었다.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연간 2,900만원, 매달 242만원 기분을 더 받은 셈이다. 여성 임원의 비율이 남성보다 현저하게 적고, 남녀 직무 차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남성 직원의 평균 급여는 ▲삼성전자(1억 2,7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외

에 ▲SK이노베이션(1억 2,100만원), ▲LG상사(1억 1,600만원), ▲SK텔레콤(1억 1,000만원), ▲삼성생명(1억 800만원)도 여대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평균 급여의 경우도 ▲삼성전자(8,800만원)가 가장 높았고, 이어 ▲SK텔레콤(8,000만원) ▲SK이노베이션(7,700만원), ▲현대자동차(7,300만원) ▲기아자동차(7,3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정복기자



금산교육지원청,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중립 결의대회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희찬)은 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중립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금산교육지원청 및 금산도서관 전직원 60여명은 선거 중립 결의 대회를 실시했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담당자 연수 및 협의회

논산계룡교육지원청 Wee센터,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전반적 설명 등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Wee센터는 2일 오후 3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제 1회의실에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담당자 연수 및 협의회를 실시했다.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는 성장기 학생들이 흔히 경험하게 되는 정서·행동 별달상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전에 예방해 학생들이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예방 프로그램이다.

이번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담당자

연수 및 협의회에서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업무 담당자가 원활하게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및 나이스 시스템 사용방법을 연수 내용으로 다뤘다.

특히 올해는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영어 등의 5개 국어로 된 다국어 버전이 새롭게 추가되어 한글 이해가 어려운 다문화 학생 및 학부모들의 검사 실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논산=김태선기자



노사 협력 성희롱·성폭력 예방 캠페인

신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성희롱·성폭력 없는 직장문화 실현

신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 흥원)은 3일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노사가 함께하는 성희 룰·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사회 전 부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내 성희롱·성폭력과 관련, 피해 예방과 균질화 체계 실천을 위한 노사 간 상호 다짐의 자리를 갖 고자 마련됐다.

송병배기자

학교폭력 예방 위해 현장 맞춤형 지원 확대

세종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역량 강화 지원 위해 현장지원 박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 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현장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종시 교육청은 2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세종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교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3일에는 국립세종도서관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연수」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현장지원 단 협의회를 개최한다.

먼저, 「학교폭력예방 교감 역량강화 연수」는 자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학부모 응대 등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강의로 구성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사례 중심 사인처리 절차와 교감의 역할 ▲갈등해결을 위한 보호자 응대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교육 ▲시안처리 모의실습 등 4개

과정으로 진행됐다.

특히, 학교 급별 분임을 구성하여 정보 공유와 토의를 실시하여 더욱 유익한 연수가 됐다. 또한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 폭력 예방 연수」는 현장지원단이 학교를 방문하여 교직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연수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장지원단은 현장전문가(교감 및 학교폭력 책임교사 경력이 많은 교사)와 교육전문직,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며, 시안처리 컨설팅과 교육공동체의 학교폭력 인식제고를 위한 연수를 지원한다.

이번 협의회에서 위촉된 20명의 현장 지원단은 2018학년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장지원 방안과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연수’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 협의한다.

세종=이정복기자

초등 외국어 방과 후 캠프 개강식 실시

당진교육지원청 외국어교육센터, 관내 초등학교 30개교 대상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은 지난 2일 관내 초등학교 30개교를 대상으로 초등 외국어 방과 후 캠프(영어, 중국어) 참가 희망자를 신청받아 3일 오후 4시 개강식을 실시했다.

이번 개강식은 당진 관내 초등학교 학생 57명(3~6학년 대상)으로 영어 2개반, 중국어 1개 반을 개설해 4월 29일부터 11월 20일까지 7개월 간 총 25주 운영(방학기간 제외)하게 된다.

또한 학생활동 중심 수업방법을 운영하기 위해 당진외국어교육센터 총 3명

의 원어민 영어교사 2명, 중국어 교사 1명이 중심이 되어 2명의 파견교사와 함께 수업방법, 지도자료 등의 선정을 위한 협의회를 가졌다.

한홍덕 교육장은 “이번 방과 후 프로그램 3개 반 운영을 통해 당진교육지원청 학생들이 외국어 교육 분야의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기를 바라며, 장기적으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착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외발자전거로 체력과 체형을 챙긴다

충남교육청, 외발자전거 타기 활성화 위해 업무협약 체결



수 있는 청소년들의 거북목 및 척추 측 민증 예방 및 치유에 효과적인 운동으로 잘 알려졌다.

충남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외발자전거 타기를 정규 교육과정은 물론 방과후 교육활동 및 학교스포츠클럽 등 아리 활동을 통해서 건강 체력을 기르고 올바른 체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홀로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길러 줄 생각으로 2018 체육분야 특색사업으로 지정하고 외발자전거 타기 활성화에 나섰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외발자전거 타기 사업을 위해 지도교사 직무연수, 외발자전거 교사연수회 조직 및 강사 인력풀을 위한 재능뱅크 등을 금년 상반기 에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교육감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에 외발자전거 타기 종목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정복기자

아산시,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개원

3년 연속 보건복지부 선정 보육정책 우수 지자체



의무 어린이집을 각 입주자 대표회의와 무상임대계약 체결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국공립시설로 전환했다.

이산시는 학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도 수요조사를 거쳐 9개소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예산을 미리 확보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입주민 등 50% 이상 동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입주자 대표회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속하게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위탁대상자가 신정된 풍기읍이자리1차(A), 배방3차한성빌(A)은 6~7월 경 개원예정이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예산을 신청한 모종캐슬어울림2단지(A)는 4월 공고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도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동의를 거쳐 추가로 개원할 예정이다.

아산=리량주기자



보령교육지원청 Wee센터, 2018 꿈키움 멘토링 멘토단 위촉식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조민행)은 지난 2일 보령교육지원청 제2회의실에서 교육장을 비롯한 업무 담당자, 꿈키움 멘토링 멘토단이 참석한 가운데 2018 보령「꿈키움 멘토링 멘토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2018 보령 꿈키움 멘토단은 총 10명의 멘토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위촉장 수여식과 더불어 꿈키움 멘토단 운영 인내, 멘토-멘티 결연에 관한 협의를 가졌다.

● 등 정 ●●●

공동교육과정 수업 참관



김지철 충남
도교육감= 4
일 오후 6시에
설화고등학교
에서 열리는
『지역연계 공
동교육과정 수업』을 참관.

세종시 기능경기대회 개회식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4일
오전 10시 30
분 세종하이
텍고등학교에
서 열리는
『2018년 세종시 기능경기대회
개회식』과, 오후 3시, 세종시 전
면으로 노곡로 산7-1 일원에서 열
리는 「2018년 세종시 교육청 식
목행사」에 참석.

환경해권행정협의회 정기총회



김석환 홍성군
수= 4일 오후
5시 보령시청
종회의실에서
열리는 환황
해권 행정협
의회 정기총회에 참석.

“도민 바라보며 흔들림없이 도정 수행”

남궁영 충남도지사 권한대행, 행복한 직원 만남의 날에서 밝혀



남궁영 충남도지사 권한대행이
3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행복
한 직원 만남의 날에서 공직자들
이 직업 공무원으로서 흔들림 없
는 도정 수행에 임해줄 것을 당부
했다.

이 자리에서 남궁 권한대행은
도정을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흐
름으로 본다면 민선 5·6 기에도
좋은 변화들이 있었다며 이러한
성과미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
했다.

그러면서 남궁 권한대행은 과
거에 비해 두드러지는 민선 5·6
기 도정 성과로 민주 행정, 거버넌
스 행정, 프로 행정의 정착을 꼽았
다.

민주 행정은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도민지향성을 분명히
했다는 의미이며, 거버넌스 행정
은 의사결정 시 전문가의 자문과

조언을 받아 결정하는 시스템이
자리 잡았다는 의미다.

프로 행정은 직업 공무원으로서
어떠한 시대적·정치적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도민만을 바라보고
도정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
췄다는 의미라고 남궁 권한대행은

설명했다.

남궁 권한대행은 “전임 지사의
일탈로 도정이 많은 비난을 받고
있으나 민선 5·6 기에도 분명히
좋은 변화들이 있었다”며 “프로 행
정가로서 도민의 뜻을 담아 일 한
다는 마음가짐으로 도정 운영의 중

심을 잡아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
부했다.

이어 남궁 권한대행은 “희망은
가슴속에서 피어나는 꽃이다”라는
희망메시지의 글귀처럼 가슴속
에 희망이라는 꽃을 담고 4월, 5월
에는 좋은 미래를 만드는 데 집중
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정 당면과제로 국비
확보, 2018 생활체육대축전, 구제
역·AI 대응, 산불, 국가안전대진
단 등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안정적
으로 수행하는데 힘을 모아줄 것
을 당부했다.

끌고 남궁 권한대행은 “저부
터 도정에 대한 애정을 갖고 도민
과 직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하겠다”며 “충남도 공직자 여러분
들도 진실된 마음으로 도정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한 기자

민선6기 최종 공약이행 평가

황선봉 군수 ‘A 등급’

예산군은 지난 2일 한국매니페
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
공개 민선6기평가에서 우수 등급
인 ‘A’등급을 받았다.

평가는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매
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단은 지난
2월부터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8년도
공약이행정보를 분석하고 소명과
자료보완을 거쳐 우수등급을 받은
전국 자치체를 발표했다. 충남에서는
예산군을 비롯해 부여군, 홍성
군이 A등급을 받았다.

평가는 ▲ 민선6기 공약
이행 완료 분야 ▲ 2017년 목표달
성 분야 ▲ 주민소통 분야 ▲ 웹
소통 분야 ▲ 공약입지도 분야
등 총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해 진
행하고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 평가 방식으로 진
행됐다.

군은 분야별로 공약 이행을 실
천해 5가지 항목에서 고른 점수를
받아 합산 결과 ‘A’등급 총점 80점
이상으로 선정됐으며 특히, 공약
이행 실천과 주민소통 분야 등에
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황선봉 군수는 “오늘과 같이 민
선6기 공약사업이 대외적으로 좋
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동안 군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
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
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
늘의 평가 결과에 만족하기보다는
더 나은 군민 행복과 희망을 위
해 남은 임기동안 진행 중인 공약
사업에 대해서도 완료될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
다”고 밝혔다.

한편, 민선6기 공약이행평가위
원회 이한우 위원장은 “민선6기
취임부터 4년간 순수 민간인들로
만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군 최초
로 구성해 군민들로부터 시수로
소통했으며, 공약이행을 위한 국도
비 확보, 기업유치 방문, 사업현장
을 수시 방문 등을 군수가 직접 행
되었기에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예산=양성업기자



세종시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9~22일까지 생후 3개월 이상 반려견 무료접종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준
희)가 9~22일까지 생후 3개월
이상 반려견에 대해 광견병 예
방접종을 실시한다.

세종시민으로 접종을 원하는
사람은 기한 내 반려견을 테리
고 가까운 동물병원(관내 15개
동물병원)을 찾으면 된다.

접종비는 5,000원이며, 병원
을 찾기 힘든 노약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마을회관
등에서 수의사 출장 접종을 받
을 수 있다.

광견병 예방접종은 연 1회로
서, 작년 가을에 접종한 경우는
제외된다.

세종=김정환기자

행복청 복합편의시설 본격 착수

2019년 6월 완공…시민 문화예술 수요 해소할 것으로 예상



행복청 중심 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정부세종
청사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인
근(제7주차장)에 건립하는 ‘복
합편의시설’을 청사 주변 6개 부
지에 3개 공사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올해 소하천정비사업은 흥성을 옥암
리 옥암소하천, 금마면 용흥리 뒷골소
하천, 은하면 대율리 대율소하천, 서부
면 이호리 이호소하천, 서부면 신리 신
리소하천 등 5개 지구 7.29km에 걸쳐
는 구역에 37억 원을 투자해 추진할 예
정이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광천을 옹암리 일원 7,799m²
의 개선을 위하여 16억 원을 투자할 계
획이다.

소하천정비사업은 인근 기록과 농경
지에 상습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호안정비를 통해 하천의
기능을 확보하여 주택기와 농경지 침
수피해를 예방하고, 농마루풀 포장을
시행하여 영농여건을 개선함은 물론
천환경 정비를 통해 환경개선에도 크
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는 주택 가의 사면봉과 우려지역에 대한
개선을 통해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편리하게 정비하는 데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재해대책 기간이 다가
오기 전 주요 취약지에 대한 정비를 우
선 시행해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의 생
명과 재산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흥성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성=김정환기자

장곡면 장곡기미 3.1운동 재현

홍성군 장곡면이 지난 3일 장곡기
미 3.1운동 유족회 주관으로 유족회
원, 기관·단체장,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곡기미 3.1운동 기념
식 및 재현행사를 가지며 3.1운동의
의의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선열들에 대한 추
모제향을 시작으로 독립선언문 낭독,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 기념식을
거행하고, 약 1㎞를 만세를 부르며 가
두행진하는 순으로 진행 됐다.

장곡기미 3.1운동은 1919년 4월 4
일 장곡면 신풍리 매봉산에서 운의
중·현중·낙중 삼형제의 횃불시위
를 시작으로 4월 7일 도산리 윗산에서
주민 500여 명이 모여 대한독립만세
를 외치며 잔혹한 탄압을 일삼던 일제
에 항거한 운동으로, 항일운동사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의미를 간직하고 있
다.

홍성=김정환기자

예산군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청탁금지법 주요내용·부패극복 방안 시례위주 설명

예산군은 2일 충남 도내 1위(전
국 군부 7위)에 빛나는 청렴 예산
의 명예를 이어가기 위해 전 직원
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청렴교육은 직원들의 청렴의식
을 강화하고 청렴의지를 새로이
다지는 시간으로, ‘행복한 대한민
국을 만드는 Tipping Point, 청탁금
지법’을 주제로 진행됐다.

미세먼지는 또 폐렴과 폐암, 뇌
졸증, 심장질환, 천식 등의 질병을
악화시키며, 어린이의 경우 폐 성
장을 저해하고, 임산부의 경우는
저체중과 조산을 초래할 수 있다.

노인은 호흡기질환과 심혈관질
환 등 기저질환에 악화될 수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미세먼지 예보를 주기
적으로 확인하고 △미세먼지 농도
가 높을 시 외출 자제 △기저질환

기존 치료 유지 △식약처 인증 미
세먼지 차단 마스크 착용 △증상
악화 시 진료받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김홍구 도 건강증진식품과장은
“미세먼지 피해를 막기 위한 최선
의 예방수칙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도
가 시·군 보건소에 배포한 기저

질환자 건강수칙,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등의 홍보물을 적극 참고
해 달라고 밝혔다.

이정복 기자



의 신뢰를 받기 위해 전 직원이 솔
선수범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산=양성업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준
희)가 3일 시청에서 친환경제품
전시회를 갖고, 시민들의 녹색
소비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세종시 친환경생활활성화센터
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
는 생활용품과 사무용품 등 5개
분야 42종의 친환경제품이 전
시화, 시민들의 눈길을 모았다.

또, 시청 내 어린이집에서 열
린 환경교육 인형극을 통해 원
아들(40여명)에게 환경의 중요
성을 일깨웠다.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해 가정

에서 전기를 절약한 만큼 현금
이나 그린포인트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 가입 행사를 실
시, 시민 100여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환경정책과 김주식 과장은
“민간부문의 친환경제품 소비
촉진을 위해, 읍면동 복합커뮤
니티센터, 학교 등 순회 홍보·
전시를 계획하고 있다.”며 “세
종시가 친환경 도시로 자리 잡
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정환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www.daejeontoday.com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동정

장애인의 날 기념식



이창규 아산시장
권한대행=4일 오전 11시 평생학습관에서 열리는 제38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적립기금 전달식



김홍장 당진시장
=4일 오후 2시 당진시청 접견실에서 열리는 농협은행 제휴카드 이용 적립기금 전달식

에 참석

독립만세운동 기념식



이종윤 당진시의장=4일 오전 10시 창의사와 천의장터 일원에서 열리는 대호지·천의장터 4.4 독립만세운동 기념식 및 재현행사에 참석.

국가브랜드대상 시상식



이석화 청양군수
=4일 오전 11시 서울 롯데 호텔에서 열리는 청양구 기자 국가브랜드대상 시상식에 참석.



온양5동 청렴·친절 결의대회

아산시 온양5동(동장 심홍섭)은 지난달 30일,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친절 마인드 향상을 위한 결의식 및 교육을 실시했다.

2018년도 상반기 청렴 슬로건 제정을 시작으로 부정청탁 사례를 통한 청렴교육과 함께 각자의 업무소개 및 민원 응대 요령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앞으로 매월 직원간 업무공유워크숍을 개최해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업무의 이해도를 높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강화할 계획이다.

심홍섭 동장은 "청렴과 친절은 공직자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덕목으로, 청렴하고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양5동이 되기 위해 지속적인 청렴·친절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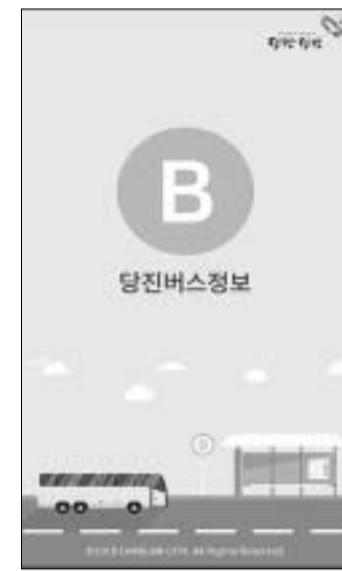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흥대로 26-20 대전법률 7층

도민체전 성공적 위한 '관광학교' 운영

우/리/동/네

편리한 버스정보 앱 서비스 개시

당진시, 노선·시간표·정류장 검색 제공



당진시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버스 정보 앱을 개발해 서비스를 시작했다.

당진 버스정보 앱은 시내버스 노선과 시간표, 정류장을 검색할 수 있으며 이용에 필요한 안내사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종 이용안내에서는 당진시의 버스정책과 고속버스 시간표도 확인이 가능하다.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당진 버스정보'로 검색하면 내려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아이폰 앱은 추후 개발해 서비스될 예정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버스 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버스 이용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실시간으로 버스의 위치와 정류장별 도착 예정 시간을 알 수 있는 버스정보시스템(BIS)도 오는 2020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당진=최근수기자

태안군, 지역 관광서비스 질 향상·'고객 감동' 관광서비스 제공 총력



태안군이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광학교 개강식을 갖고 6주간의 관광리더 양성 과정에 돌입했다.

군은 지난 2일 군 교육문화센터 다목적강당에서 한상기 군수 등 군 관계자와 관광학교 강사, 수강생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태안 관광학교' 개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태안 관광학교는 오는 9월 개최되는 제70회 충남도민체전을 맞아 관광객들에게 보다 나은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지역관광에 관심이 있는 군민 및 관련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난 2015년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첫 운영돼 100여 명의 '관광 이노베이터'를 배출한 아래 지역 관광 서비스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18 태안 관광학교는 2일부터 5월 17일까지 주 2회 총 12회 교육이 실시되며, 위탁기관인 주글로벌 앤로컬브레이브파크가 총 100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활용한 관광수요 확인 ▲지역과 관광의 상생전략 ▲농촌관광을 통한 지역 활성화▲관광객 수용을 위한 서비스 마인드 등을 주제로 교육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지역관광 활성화 우수사례지를 답사하고 수강생들이 직접 관광콘텐츠를 기획해 발표하는 등 수강생들의 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되

는 효율적인 교육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태안군은 지난해 국제슬로시티 브랜드 인증을 받아 명실상부한 국제 관광지로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으며, 해양치유 연구개발 협력 지자체 선정과 제70회 충남도민체전 개최 등 유의미한 성과를 연이어 거두며 관광도시 구축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개강식에 참석한 한상기 군수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 최근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광산업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사계절 태안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도록 관광산업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이 시대의 당진 작가전 2018' 전시회 열려

김준섭 작가초청, 한글·한지에 물들다' 주제

(재)당진 문화재단이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당진 문예의 전당 전시관에서 '이 시대의 당진 작가전 2018' 전시를 개최한다.

올해로 2회를 맞이하는 '이 시대의 당진 작가전'은 당진지역 미술계 발전에 기여한 원로 작가를 선정해 업적을 기리고 시민에게 일rips으로써 지역 미술계 발전과 전시문화 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작가전에 초대된 김준섭 작

가는 40여 년 간 교단에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친 만큼 한글 사랑이 넘나른다.

작가 스스로 "한글을 짜샤링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만큼 오랜 세월 동안 한글을 헌신의 언어로 사용하는 조형적 실험을 이어왔으며, 끊임 없는 연구를 통해 한국의 전통 소재인 한글과 한지에서 서양의 아크릴 물감과 페인트를 조합하는 등 과감하고 실험적인 회화작품을 만들어 왔다.

'한글, 한지에 물들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전통 망사한지를 이용해 캔버스 위에 부착하고 한글의 달소리, 홀소리 문자를 작가의 주관적 해석으로 조합하고 분해해 조형적 요소로 새롭게 구성하고 배치한 김준섭 작가의 최근작을 만나볼 수 있다.

한편 '이 시대의 당진 작가전'은 매년 5월 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작가를 선정해 다음연도 상반기에 초대전을 개최하며, 선정된 작가에게는 전시 공간과 홍보, 작품 운반, 큐레이터 등 전문인력이 지원된다.

회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 등 의무기관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청양=정상범기자

색 공간을 확대하자는 아산시 도시 녹화운동 취지로 추진됐다.

김형관 동장은 "시민의 휴식 공간을 녹색으로 물들여면서, 이곳을 찾아오는 시민들이 행복을 느낄 것을 생각해 매우 뿐듯하고, 이번 작업을 도와준 권곡2동 마을주민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양3동은 권곡2동이 운동기구 및 육각정과 함께 주민의 소통 문화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멀지게 소화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청양군 직원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날 중부대학교 보건복지학부 문예회관에서 350여명의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배려하며 살아가는 분위기를 만드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가졌다.

이날 청양군수 이석화는 3일 청양군 문예회관에서 350여명의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배려하며 살아가는 분위기를 만드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가졌다.

해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장애인 관을 제시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반복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장애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더불어 행복한 사

온양3동 꽃 잔디 식재로 쾌적한 휴식공간



아산시 온양3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형관)는 2일 오전 권곡2동과 도시녹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인 권곡2동 운동기구 설치공간에 꽃 잔디 300여 본을 심었다.

지난달 유휴공간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민의 건강증진과 함께 이번 꽃 잔디를 식재하며 주민의 정서함양에도 기여하게 됐다.

꽃 잔디 식재는 권곡2동 마을주민 15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시민이 함께 도시 숲 조성, 관리하며 녹

았다. 또한 중개보수도 거래유형에 따른 금액만 입력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어 그동안 관련 법령을 찾아 계산하던 불편을 해소하고 군민 편의 증진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신규 개설 및 이전 등으로 인한 QR코드 누락 등 미 부착 업소에는 추가로 부착하는 등 일제정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관내 중개업소 이용 시 부동산 중개업소 모비일 서비스를 활용해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하여 피해보는 일이 없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청양군 중개업소 정보 확인도 스마트하게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무자격·무등록 중개거래 행위자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거래문화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QR코드 서비스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부동산 중개업소 정보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 입구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상호,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및 사진, 주소, 영업상태 등 관련 정보를 바로 확인 가능해 무등록자 중개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일이 꽉 차 전국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

태안군의 상징이자 태안반도의 대표 수산물인 봄 꽂게가 이달 본격적으로 수확돼 관광객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태안군에서는 향·포구별 하루 약 2~3톤 가량의 꽂게가 매일 출하되고 있으며, 아직은 수확량이 적은 편이나 날씨가 따뜻해지는 이달 중순부터는 5톤 이상의 꽂게가 매일 출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태안 꽂게는 육질이 단단하고 속이 꽉 차 태안반도 특유의 달콤한 맛이 그대로 살아있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과 전국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장에서 판매되는 꽂게의 위판가격은 근처면 신진도 위판장의 경우 1일 현재 1kg당 대형은 3만 3천 원, 중형은 3만 6천 원 선에 형성돼 지난해 봄 수확 초기 대비 약간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확 초기 간장계장용 꽂게 수요가 많아 중·소형 꽂게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태안군에 오셔서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꽂게의 향연을 즐겨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온양4동, 가로변 꽃 심기·환경정비

아산시 온양4동 새마을협의회(회장 김승래, 라성호)는 지난 2일, 가로환경개선을 목표로 관내 주요 가로변 꽃 심기 및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우리/동/네

전국최초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추진



마을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공포… 주민세 전액 환원해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지원

우리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주도 주민협의체인 '논산형 동고동락(同苦同樂) 마을자치회'가 본격 추진된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3월 30일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공포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할 '논산형 동고동락 마을자치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논산형 동고동락(同苦同樂) 마을자치회는 기존 마을의 대표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안에서 마을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마을자치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마을자치회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마을 단위별 마을자치회 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456개소에 10~20명의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자치회를 완성했다.

마을자치역량 조사를 통해 마을 활동기를 발굴하고 자율모임을 통해 공동체가 스스로 일을 찾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민이 주인 되는 살맛나는 동네자치를 구현하는 것이 마을자치회의 목표이며, 전통적인 리·통·마을 단위로 자치회가 조직되는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다.

아울러, 2017년 기준 주민세 5억 1천만원 전액을 포함한 1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주민세 전액을 자치기구에 환원하는 것 또한 처음 있는 사례다.

논산시는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해 생활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 및 소년소녀 가장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과 깨끗한 마을 조성을 위한 마을경관 개선사업 등 마을자치활동을 지원해 마을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마을행사에 참여를 유도하는 관계중심의 공동체 복지 실천의 장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시는 조례에 따라 주민 주도적 갈등조정과 동고동락 프로그램에 관한 주민의견수렴, 마을단위 공동육아와 평생교육 등에 마을의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해 자발성, 자주성, 자율성을 확보하는 지방자치발전의 새로운 길을 제시함은 물론 주민이 학습상 권리인 자치권을 직접 실현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마을이 곧 희망"이라며, "마을자치의 핵심은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중요한 일을 민주주의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다. 주민자치는 시대적 시대가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논산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치공간 속에서 주민참여 및 자치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마을자치회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4월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아카데미를 시작으로 ▲마을자치회 주민역량강화 교육사업 ▲마을자치회 활동 지원을 위한 중간 조직 양성사업 ▲마을자치회 활성화 지원사업 등 본격적으로 동고동락 마을자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논산=김태선기자

전문자격증 취득교육 과정 운영

계룡시,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학습자 모집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2018년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해 교육과정을 선정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학습자 모집에 나섰다.

시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은 단순한 취미나 교양교육에서 벗어나 주민의 교육적 전문성을 함양하고 취·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민간자격증 과정으로 특화되어 운영되는 민간단체 지원사업이다.

올해 운영되는 자격증 과정은 ▲운전기능검정원 취득 과정 ▲해파실버지도자(지역매체방송지도자) 과정 ▲역사논술지도사(한국사) 과정 ▲학교폭력예방교육지도자 과정 ▲저작권관리사 과정 ▲산업보안안전관리사 등 6개 과정으로 오는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계룡시에 주소를 둔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 참가비는 무료이다. 단, 자격증 취득비와 재료비 일부는 참가자 부담이다.

과정별 자세한 교육일정과 접수 방법은 시청 홈페이지 평생 교육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격증 취득 후 학습동아리 활동이나 자체학습을 통해 관련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천군 충남 태권도 꿈나무 열전

연이은 대회 개최로 서천 지역골목상권 곳곳에 활력 기대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충남 태권도 꿈나무들의 열전인 제46회 충남소년체전 및 2018 전국소년체전 충남대표 최종선발전이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서천군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충청남도교육청·충청남도태권도협회·서천군태권도협회가 주최 및 주관하고 서천군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초등부, 중등부 선수를 비롯해 임원 등 총 6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9일 선수 계체를 시작으로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충남소년체전 경기가 진행될 예정이며, 8일 충남대표 최종선발전 경기를 통해 초·중등부 체급별 1위 입장자에게는 2018 전국소년체전 출전권을 부여된다.

서천군은 지난달 열린 제29회 충청남도교육감기태권도대회와 같이 많은 인원의 참가 선수와 가족이 서천을 방문해 대회기간 내 숙박, 음식점 등을 이용하며 지역골목상권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천군 담당자는 "이번 태권도 대회로 우리 지역을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며 "태권도 중심도시 서천의 이미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이고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전국 및 단위 태권도 대회를 적극 유치 개최해 태권도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천군은 올해 대전MBC전국태권도페스티벌, 제4회 한국중고여도선수권대회, 제1회 세팍타크로 실업리그 및 제16회 전국학생세팍타크로대회 등 각종 전국 및 단위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 실시

20인 이상의 기관·단체·학교, 동아리 등 신청 가능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성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오는 9일 계룡시 보훈회관에서 시민 50명을 대상으로, 13일에는 계룡시노인복지관에서 80명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을 진행하고 시민들의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이번 교육은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진행과 차별·성희롱 없는 양성이 평등한 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고 올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교육대상에 맞는 전문강사를 초빙해 시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적절한 강사를 파견해 무료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 위주의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20인 이상의 기관·단체·학교·동아리 등 시민 누구나 계룡시청 사회복지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남녀의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는 등 누구나 평등한 사회구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계룡시청 사회복지실(042-840-2322)로 문의하면 된다.

꽃, 맛에 취하다' 제19회 서천 동백꽃 주꾸미 축제 성료

61억 원 경제효과 창출… 명실상부한 서천군 봄 대표 축제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서천군(군수 노박래) 서면 마령리

에서 개최된 제19회 서천 동백꽃 주꾸미 축제가 명실상부한 서천군 봄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축제 기간 동안 약 47만 명의 많은 관광객들이 축제장을 방문, 61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이뤄내며 동백꽃 주꾸미 축제는 해마다 관광객 수와 지역경제 효과 금액 기록을 간신히 넘고 있다.

축제를 통해 붉은 동백꽃과 함께 제철 맞은 주꾸미는 봄의 콘셉트를 살려 서천군 브랜드 가치를 널리 알리며 전국 관광객들의 눈과 입을 즐기는 동시에 밭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올해는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소리?고동 주꾸미 잡기체험, 느린 우체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해 제공했으며 가장 인기 있는 이벤트로 꽂히는 어린이 주꾸미 낚시 체험은 시작 전부터 표를 사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몰렸으며 표가 매진되는데 단 5분도 걸리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 관광객들이 불편을 호소했던 회장실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고정식 회장실 외에 추가로 이동식 회장실을 설치해 관광객에 편의를 제공한 것도 축제를 성공으로 이끄는데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면개방위원회는 오는 5월 12일부터 27일까지 서면 홍원항 일원에서 자연산 광어·도미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 소통 노력으로 최우수 등급에 선정됐다는 평가다.

김진철 정책기획관은 "4년 연속 공약이행평가 최우수 SA등급을 달성한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민이 행복한 천안을 위해 혼신을 다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성숙한 민주주의와 올바른 시민주권을 실현하고자 2006년 출범한 시민단체로 매년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공약이행평가를 통해 참다운 지방자치 구현에 힘쓰고 있다.

천안=이풍호기자

딸기축제 가즈아~ 참을 수 없는 새콤달콤함

논산시, 5개분야 90개 디채로운 체험과 문화행사



를 위한 외국인 행사 확대 등 논산 딸기 세미나를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해 2018 딸기축제를 더욱 알차게 구성했다.

4일 오후 6시부터 개최되는 개막식에서는 주한 외교사절 11개국 40여명을 초청, 친환경고품질 논산 딸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장이 열리며 축제 하이라이트인 개막공연에는 모모랜드, 티아풀, 채환, 김혜연, 배일호 등이 출연해 축제 분위기를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주요 공연행사는 ▲4월 4일 첫날은 육군훈련소 군악대연주회, 개막축하공연 ▲5일은 번개만화 함께하는 어린이세상, 가족대형 딸기이벤트, 관광객 및 외국인 딸기 퀴즈, 탁 페스티벌 ▲6일은 딸기사 생대회, 풍물한마당, 외국인 끼 경연페스티벌, 논산 IN 하모니 빅 밴드쇼, 7080 버스킹 공연 등이 열린다.

주말이 시작되는 ▲7일 토요일에는 자전거 소풍길 대행진, 논산사랑 걷기대회, 전국 어린이 대축제 등 다양한 체험과 문화행사를 통해 보고 느끼고 맛볼 수 있는 디채로운 프로그램 마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흥풍시장 개척을 계기로 딸기 수출시장 확대

는 논산시민화합한미당, 딸기 작은 희망의 쇼, 논산에 술인한미당, 딸기 K-POP 캘리공연, 박상철, 박구윤 등이 출연하는 페막죽하공연 등이 열린다.

딸기의 풍미를 즐길 수 있는 체험으로는 최고 인기 프로그램인 청정딸기 수확체험을 비롯해 딸기떡갈기, 딸기케이크, 딸기잼 만들기 등 디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상춘객들의 발길이 대거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올해 딸기축제는 관촉로에 만발한 벚꽃개화시기에 맞춰 개최돼, 화려한 벚꽃이 절정을 이루며 해설사와 함께 떠나는 논산여행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 할 예정이다.

축제장 외연에서는 자전거 소풍길 대행진, 논산사랑 걷기대회, 계백장군 제례봉행식 등 딸기와 문화·관광을 접목한 풍성한 문화예술행사가 함께 열려 축제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4월 5일부터 9일까지 논산천둔치와 딸기밭 일원에서 열리는 논산딸기축제는 전국에서 56만여명의 관람객이 찾았으며 220억여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거뒀다.

논산=김태선기자

동정

논산딸기축제 개막식



황명선 논산시장= 4월 오후 2시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주한외교사절단 환영리셉션에 참석, 오후 6시 2018 논산딸기축제 개막식에 참석.

한자녀 더 갖기 교육



최홍묵 계룡시장= 4월 오후 1시 계룡시 보훈회관에서 열리는 한자녀 더 갖기 교육 참석.

공로패 수여식



노박래 서천군수= 4월 오전 9시 군수실에서 열리는 공중보건의사 복무만료에 따른 공로패 수여식에 참석, 오전 10시 군수실에서 진행되는 명상숲 조성에 따른 협약식에 참석, 오전 11시 30분 군수실에서 열리는 한산도시문화제 지원 한국중부발전(주) 서천건설본부와 협약식에 참석.

시상식



이용우 부여군수= 4월 오전 10시 30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국가브랜드대상 시상식에 참석.



귀농귀촌 희망도시 1번지 만들기 '올인'

부여군, 귀농인희망센터 준공

부여군이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위한 귀농인희망센터를 준공, 귀농귀촌의 최적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3월 30일 남면 송학리 귀농인희망센터에서 기관단체장, 임교생, 인근주민, 귀농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귀농인희망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귀농인희망센터에는 총면적 13,953㎡에 다가구주택 10가구

정

조례규칙심의회



김동일 보령시장
= 4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상황실
에서 열리는 조례
규칙심의회, 오전
11시 30분 시장실
에서 건설기계 대표자간담회, 오후 2
시 보령문화예술관과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식 및 역량강화교육.

국가브랜드 대상 시상식



이완섭 서산시장
= 4일 오전 11시 서
울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2018 국가
브랜드 대상 시상
식에 참석, 오후 5
시 보령시청에서 열리는 환경재권행
정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

영어듣기평가 교감 회의



유영덕 공주교육
지원청 교육장= 4
일 오전 10시 30분
공주교육지원청
중회의실에서 열
리는 '제1회 영어
듣기평가 중·고 교감 회의'에 참석
하고, 오후 10시 40분 공주중등성당
에서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삶과 생
활' 특강을 실시.

금산군 선거중립 다짐 결의대회

금산군은 올해 6월 13일에 있을 제7회 전
국동지방선거를 앞두고 2일 소속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산군청 회의실
에서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 의지를 다
지기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를 통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근절하고 공직기강 확립,
공직선기법 위반 행위 사전 예방으로 깨끗
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킬 것을 다짐했다.

결의문은 △직무 관련 지위를 이용한 선
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업적 홍보 또는 선거운동 기획
관여 금지 △인터넷, SNS를 이용한 일체의
선거운동 관여 금지 △공직선거법 절차 준
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기영 부군수는 "선거에서의 엄정중립
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로서 소명의식을 분
명히 갖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
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기권)
는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공무원 선거개
입이 균형되기를 바란다며,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를 균형화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준 금산군청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표
표한다고 밝혔다.

금산=주연기 기자

추가경정 예산 1305억원 의회 제출

공주시, 도시인프라 구축·구도심 활성화·시민불편 해소사업 배분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지난 달 28일 도시인프라 구축, 구도심 활성화 및 시민불편 해소사업 등 당초 예산 대비 1305억원 증가한 7250억원 규모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공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105억원, 특별회계 210억원이 증가했으며, 정부예산확보 노력으로 교부받은 보통교부세 증가분 576억원과 순세계 잉여금 395억원, 지방세 23억원 및 국·도비 311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

했다.

주요사업으로 △용수천 지방하천정비 등 재난안전사업 98억원 △월송복합문화센터 건립 63억원 △강북생활문화센터조성 13억원 등 국가정책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에 550억원을 배정했다.

또한, △교통회관 및 공연장과지 이전 66억원 △쌈지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조성 38억원 △시청~사대부고 도로확포장 20억원 △신관동근린공원조성 18억원 등 도시 확장에 따른 인프라 구축과 △구 공주의료원 개선 65억원 △역사인물관

전시공간 조성 19억원 △제민천변 활벽거점 조성사업 16억원 △원도심 활벽거점 조성사업 16억원 △역사영상관 공원 개선사업 6억원 등 구도심 활성화 사업, △제64회 백제문화제 개최 5억원 △공주얼음축제 3억원 등 관광분야 핵심사업 등에 집중 배정했다.

시는 이번 추경예산을 우선 도시 확장에 따른 인프라 조성과 구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에 포커스를 맞췄으며, 도시의 성장 동력이 될 어류축제 신규 투자 등 미래 먹거리사업과 아울러 마을안길,

경로당보수 등 시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도 수렴·반영해 향후 도시발전과 시민편의를 고려한 예산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시민의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임을 강조하여 의회가 심도 있는 심의를 해줄 것을 기대하며, 제출했던 2018년도 당초 예산 삭감사업에 대한 재의구인을 철회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는 5일과 6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일 확정될 예정이다. 공주=정상범기자



“환상의 푸른빛 레이스 즐겨보자”

5일부터 제31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요트대회 개최

보령시는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보령요트경기장 일원에서 제31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요트대회를 개최한다.

대한요트협회가 주최하고, 충남

요트협회가 주관하며, 보령시와 대
한체육회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남녀 초·중·고
등부, 대학 및 일반부로 나뉘어 경
기와 원드서핑 등 2종목, 10개 클래
스 35개부에서 220척, 400여 명의 선
수들이 출전해 모두 9차례의 레

이번 대회에 보령 요트팀은 충남
요트 선수단으로 참가하는데, 충남
요트는 지난해 대통령기 시도대항
종합 3위, 전국체전 종합 2위를 기
록하며 좋은 성적이 기대되고, 이
번 대회에서는 경쟁 시도인 부산,
전남, 경남과 우승컵을 목표로 치

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김동일 시장은 “2016년 제5회 해양수산부 장관배 요트대회와 전
국체전 요트 종목 개최, 지난해 카
이트보딩 국제대회와 전국 최대 규
모의 제12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우리 시가

올해는 대통령기까지 유치하며 해
양스포츠 분야의 확실한 입지를 넓
혀 나가고 있다”며, “출전하는 선

수들이 대회에 만전을 기해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김동일 시장은 “2014년도 인천아시
안개임 당시 금메달을 획득했던 박

성빈(당시 14세)을 배출한 보령요
트팀은 각종 전국대회에서 좋은 기
량을 선보이고 있으며, 현재 원드

써핑과 이형민 선수와 49er급 이동

규, 백범균 선수 등이 국대표 선발

이 기대되고, 충남해양과학과 요트

팀은 레이저 일급 김디정 선수도

무난하게 선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 보령 요트팀은 충남
요트 선수단으로 참가하는데, 충남
요트는 지난해 대통령기 시도대항
종합 3위, 전국체전 종합 2위를 기
록하며 좋은 성적이 기대되고, 이
번 대회에서는 경쟁 시도인 부산,
전남, 경남과 우승컵을 목표로 치

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김동일 시장은 “2016년 제5회 해양수산부 장관배 요트대회와 전
국체전 요트 종목 개최, 지난해 카
이트보딩 국제대회와 전국 최대 규
모의 제12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우리 시가

올해는 대통령기까지 유치하며 해
양스포츠 분야의 확실한 입지를 넓
혀 나가고 있다”며, “출전하는 선

수들이 대회에 만전을 기해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김동일 시장은 “2014년도 인천아시
안개임 당시 금메달을 획득했던 박

성빈(당시 14세)을 배출한 보령요
트팀은 각종 전국대회에서 좋은 기
량을 선보이고 있으며, 현재 원드

써핑과 이형민 선수와 49er급 이동

규, 백범균 선수 등이 국대표 선발

이 기대되고, 충남해양과학과 요트

팀은 레이저 일급 김디정 선수도

특히, 보건소 프로그램 실시
주요 프로그램은 유산소운동, 균
형운동, 영양교육, 저칼로리 식단
조리 실습 등으로 운영되며, 적극적
인 비만탈출 및 건강생활실천을 위
한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된다.

특히, 보건소 프로그램 실시, 영양상
담실, 조리실, 스포츠센터와 연계해
외부 전문강사, 보건소 영양사, 운
동처방사, 간호사 등 전문가가 함께
진행하며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아
연일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신현정 보건소장은 “성인여성
비만교실 프로그램은 매년 참여자
의 운동성과가 만족스러워 입소문
으로 참여 희망자가 많아지고 있다”
며 “참여자들의 비만탈출과 건
강생활실천에 자신감을 키우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aejeontoday.com

서산시 강현자 서양화 작가 초대전

서산시가 올해 첫 번째 초대전으로 오는 7일
부터 13일까지 7일간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강
현자 작가의 초대전을 연다.

시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초대전에 강
현자 작가의 서양화 작품 40여점이 전시된다.
그리고 그 작품에 투자되는 전시회장 수익금 일부를

강현자 작가는 개인전 4회 및 단체전 200여

회를 치른 지역의 대표적인 서양화 중견작가로
신미술대전 초대작가이자 대한미술협회 운영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신미술대전 특선 2회, LA대한민국우표
대전 한국관광협회 회장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파리, 런던, 모스크바, 홍콩, 일본 등에서 열린
공모전에서도 다양한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다.

서산=김정한기자

우리/동네

서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아동복지 증진 큰 역할”

서산시는 3일 시청 상황실에서 ‘서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동 보호 및 관련지원 서비스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이완섭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민생활국장을 포함한 당연직 3명과 전문가 6명 등 9명의 위원이 포함됐다.

이날 심의회에서 이번에 새로 위촉된 위원들의 위촉
식과 함께 요보호 이동 및 아동복지 현황과 올해 아동복지
사업별 지원계획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이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 아동복지 현황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완섭 시장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아이들이 건
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와 보장함은 물론
아동복지를 증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산지역의 아동은 올해 2월말 기준 33,135명으로
전체 인구의 19.3%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올해 아동분야에 지난해보다 121.3% 인상된 66
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아동수당, 아동복지시설, 아동발
달지원계좌, 요보호 이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산=김정한기자

MODERN TRADITIONAL HOUSES



1 원통형 대다

2 난방비 대다

3 전통적인 美

4 현대적인 美

5 현대적인 美

6 현대적인 美

7 현대적인 美

8 현대적인 美

9 현대적인 美

10 현대적인 美

11 현대적인 美

12 현대적인 美

13 현대적인 美

14 현대적인 美

15 현대적인 美

16 현대적인 美

17 현대적인 美

18 현대적인 美

19 현대적인 美

20 현대적인 美

21 현대적인 美

22 현대적인 美

23 현대적인 美

24 현대적인 美

25 현대적인 美

26 현대적인 美

27 현대적인 美

28 현대적인 美

29 현대적인 美

30 현대적인 美

31 현대적인 美

32 현대적인 美

33 현대적인 美

34 현대적인 美

35 현대적인 美

36 현대적인 美

37 현대적인 美

38 현대적인 美

39 현대적인 美

40 현대적인 美

41 현대적인 美

42 현대적인 美

43 현대적인 美

44 현대적인 美

45 현대적인 美

46 현대적인 美

47 현대적인 美

48 현대적인 美

49 현대적인 美

50 현대적인 美

51 현대적인 美

52 현대적인 美

53 현대적인 美

54 현대적인 美

55 현대적인 美

56 현대적인 美

57 현대적인 美

58 현대적인 美

59 현대적인 美

60 현대적인 美

61 현대적인 美

62 현대적인 美

63 현대적인 美

64 현대적인 美

65 현대적인 美

66 현대적인 美

67 현대적인 美

68 현대적인 美

69 현대적인 美

70 현대적인 美

71 현대적인 美

72 현대적인 美

73 현대적인 美

74 현대적인 美

75 현대적인 美

76 현대적인 美

77 현대적인 美

78 현대적인 美

79 현대적인 美

80 현대적인 美

81 현대적인 美

82 현대적인 美

83 현대적인 美

84 현대적인 美

85 현대적인 美

86 현대적인 美

87 현대적인 美

88 현대적인 美

89 현대적인 美

90 현대적인 美

91 현대적인 美

92 현대적인 美

93 현대적인 美

94 현대적인 美

95 현대적인 美

96 현대적인 美</p



오늘의 하이라이트

▲ 파도야파도야(KBS2 오전 9시00분)



랑한다고 말하는 실수를 범한 진섭은 회영에게 집에서 쫓겨난다. 용서를 비는 진섭에게 회영은 이하운을 선포하는데…

▲ 전생에 웬수들(MBC 오후 7시15분)



정태(정현)는 살인죄를 뒤집어 쓸 위기에 처한다. 창식(선우재덕)은 돈으로 애심(선영)을 정훈(장재호)에게서 떼어내기로 하고 옥분(이경진)과 상견례 자리를 가진다.

▲ 해피스타즈(SBS 오전 8시30분)

상은과 재웅은 진희를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진희의 행방은 쉽게 확인되지 않고, 둘은 접점 더 애가 탄다. 한편, 회영에게 예은의 이름을 부르며 사

케이블 영화

▲ 검은사제들(OCN 오후 1시20분)

영화 <검은사제들>은 2015년 서울, 바로 우리 곁에 특별한 능력을 갖추고 비밀스런 임무를 수행하는 시체가 존재한다는 독창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소녀를 구하기 위해 위험 속으로 뛰어든 그들의 이야기를 신선하고 과감한 스티일로 그려낸 작품,

2015년 서울

뺑소니 교통사고 이후 의문의 증상에 시달리는 한 소녀(박소담). 잊은 돌출 행동으로 교단의 눈 밖에 난 '김신부'(김윤석)는 모두의 반대와 의심 속, 소녀를 구하기 위한 자신만의 계획을 준비한다.

이를 위해선 모든 자격에 부합하는 또 한 명의 시체가 필요한 상황.

모두가 기피하는 가운데 신학생인 '최부제' (강동원)가 선택되고, 그는 '김신부'를 듣는 동시에 감시하라는 미션을 받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소녀를 구할 수 있는 단 하루의 기회, 김신부와 최부제는 모두의 목숨을 잊을 수도 있는 위험한 예식을 시작하는데… "절대 쳐다보지 마. 이제부터 넌 여기 없는 거야"

그리고 마침내 소녀를 구할 수 있는 단 하루의 기회, 김신부와 최부제는 모두의 목숨을 잊을 수도 있는 위험한 예식을 시작하는데… "절대 쳐다보지 마. 이제부터 넌 여기 없는 거야"



▲ 아이언맨3(채널CGV 오후 5시30분)

21세기 가장 매력적인 히어로의 귀환
지금까지의 아이언맨은 있어라!

돈, 명예, 친구, 사랑, 수트까지... 모든 것을 잊은 토니 스타크!

그가 영웅인가? 수트가 영웅인가?

토니 스타크는 그 어떤 상황과 위험 속에서

도 자신감을 잊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아이언맨3>에서 그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연약한 존재가 된다.

<어벤져스> 뉴욕 사건의 트라우마로 인해 영웅으로서의 삶에 회의를 느끼는 토니 스타크(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그가 혼란을 겪는 사이 최악의 테러리스트 만다린(벤 킹슬리)을 내세운 익스트리미스 집단 AIM이 스타크 저택에 공격을 퍼붓는다. 이 공격으로 그에게 남은 건 망가진 수트 한벌 뿐.

모든 것을 잊어버린 그는 다시 테러의 위험으로 부터 세계와 사랑하는 여인(기네스 월트로)을 지켜내야 하는 동시에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한가지 불음의 해답도 찾아야만 한다.

과연 그가 아이언맨인가?

수트가 아이언맨인가?

TV 프로그램

* 문의 ▶ KBS 470-7320 ▶ MBC 220-2348-9 ▶ TJB 281-1101 ▶ SBS (02) 369-1090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6:00 KBS 뉴스광장	6: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6:00 MBC 뉴스투데이	6:00 모닝와이드	6:00 충청남도 영성소식	6:10 세계의 눈
7:50 인극장	7: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7:50 역류	7:20 모닝와이드	6:20 최저령 시인내인애그대	7: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8:25 아침마당	8:00 KBS 아침뉴스타임	8:30 생방송 오늘 아침	8:30 해피스타즈	6:30 은혜로운 말씀	7:30 주사위 요정 큐비쥬
9:30 KBS 뉴스	9:00 TV소설 파도야 파도야	9:30 930 MBC 뉴스	9:40 좋은 아침	7:30 시청자뉴스	7:45 브로콜리 코로로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9:40 어유만만	9:45 기분 좋은 날	10:10 SBS 뉴스	8:00 뉴스와이드	8:00 디깅 유치원
11:00 제주 4.3 70주년 특집다큐 그날	10:40 지구촌 뉴스	10:50 손꼽고, 지는 석양을 바리보자	10:30 SBS 생활경제	8:50 청곡 박일규의 북향	8:30 시리얼 티키톡!
11:55 HD한식의 미음	11:00 추리의 여왕 시즌2		11:00 열린 TV시청자 세상	9:00 CMB 스포츠	9:00 출정 슈퍼윙스
				2018 프로야구	9:40 라이브토크쇼 - 부모
12:00 월요기획	12:00 KBS 뉴스12	12:00 12 MBC 뉴스	12:00 SBS 12 뉴스	한화이글스 vs 롯데자이언츠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2:30 KBS 네트워크 특선 휴먼터치 인	12:20 손꼽고, 지는 석양을 바리보자	12:50 스위치 - 세상을 바꿔라		11:00 세계 미기행
					12:00 EBS 정오 뉴스
		1:00 속보이는 TV인사이트	1:05 TV속의 TV		12:10 세상에 나쁜개는 없다
		2:00 KBS 뉴스타임	2:30 출발! 비디오 여행 다이제스트		12:45 EBS 초대석
	2:10 트레킹 노트 세상을 걷다	2:10 생활의 발견	2:50 판디랑		13:40 사이언스 시즌3 - 왔다 사춘기
		3:10 기묘 무대	3:30 자동공부책 상위기2		13:50 이압스 스페셜 정글
		4:00 뉴스집중	3:30 TV유치원		14:00 책 광장
		5:00 KBS 뉴스5	4:00 어유만만		14:30 미 앤 마이 로봇
	5:30 동물의 세계	5:00 스톤에이지	4:55 뉴스콘서트		15:00 모피와 친구들
		5:15 영동발랄 콩순이와 친구들	5:00 스톤에이지		15:10 세계사 시기와 행
		6:00 6시 내고향	5:50 앙스트림 서프라이즈		15:50 비오밥섬의 파오파오
	6:55 시청자칼럼 우리 시는 세상	6:53 강력추천비틀트립	6:00 생방송 오늘 저녁		16:30 방귀대장 봉봉이
		7:00 KBS 뉴스7	7:15 전생에 웬수들		16:45 당명 유치원
	7:35 특집다큐 푸른하늘을 위한 투쟁	6:20 2TV 생생정보	7:55 MBC 뉴스데스크		16:50 한글 아호2
			8:00 SBS 8 뉴스		17:15 시계마을 티키톡
		8:25 미워도 사랑해	8:55 할머니네 뚱강아지		17:30 고마버스 타요
		9:00 KBS 뉴스9	10:00 손꼽고, 지는 석양을 바리보자		17:45 봄꽃 봄꽃으로
	9:40 생활방사의 비밀	9:40 글로벌 24	10:00 스위치 - 세상을 바꿔라		18:00 봄! 봄! 보니 하나 1
		8:55 살립하는 남자들	11:00 라디오 스타		18:05 쓰담쓰담 봄꽃원
			11:10 추적 60분		18:20 봄! 봄! 보니 하나 2
					18:25 아동영어 귀여워워
					18:40 봄! 봄! 보니 하나 3
					19:00 레드드래곤 - 삼국지
					19:30 EBS 뉴스
					19:50 글로벌 아빠찾아 삼만리
					20:40 다큐오늘
					20:50 세계 테마 기행
					21:30 한국기행
					21:50 EBS 다큐프리임
					22:45 극한직업

2018 서구 야구소프트볼 업외장기 3월 5주차

토요리그 경기결과

3월31일 토요 3부 갑천4구장 8시

키티호크스	21	1	1	8	11
도베르만	7	0	3	4	0

승: 김무진 패: 전상표

3월31일 토요 4부 갑천4구장 10시

무제한	3	0	0	2	1
서구청	15	4	10	0	1

승: 강재영 패: 윤석표

3월31일 토요 4부 갑천4구장 12시

듀나미스	16	0	7	13	5
Best of Best	5	3	1	1	0

승: 조인진 패: 이정한

3월31일 토요 4부 한밭중학교 2시30분

블루스톰	4	0	0	0	3	1
해병OB 야구단	7	0	0	3	0	4

승: 박성관 패: 조민규

4월1일 일요 4부 갑천4구장 8시

스펙타클	3	3	0	0	0	0
엔필드	12	6	2	2	2	2

승: 김주양 패: 송인웅

4월1일 일요 3부A조 갑천4구장 10시

아이기스	6	1	0	1	3	0	1
레인저스	13	3	2	0	3	5	

승: 민재준 패: 정준영</div

기자 수첩



김태선 기자

재활용 분리수거 시민의식 개선이 우선

식이 개선되지 않고는 쓰레기 대란에서 벗어날 수 없어 보인다.

쓰레기는 아주 쓸모없게 되 버려야 될 것들을 통틀어 말한다. 반면 재활용은 다시 재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쓰레기 배출 및 재활용 분리배출과 관련된 정책이 마련되어 하루 빨리 국민들이 숙지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재활용 분리 배출길집이에 따르면 재활용 분리 배출증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비닐이나 플라스틱의 경우 음식물이나 물질이 묻었으면 깨끗이 씻어서 배출해야 한다. 해당 폐기물을 소각할 때 오물이 묻어 있으면 중금속이나 다이옥신 등이 발생해 환경과 인체에 해롭기 때문이다.

연일 수도권 지역에서 재활용 분리수거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는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한 시민들의 분리·배출 요령 문제가 크다고 생각된다.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은 시민의

종이팩이나 페트병류도 내용물을 비우고 가급적 물로 행군 후 압착해 배출해야 한다. 특히 흡연자들은 페트병을 재료로 용도로 활용하고 풍조 등 이물질을 남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물질이 있다면 분리수거가 아닌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

기신문지나 전단지, 노트, 서적 등 종이류는 물기에 젖지 않게 끓거나 박스류에 담아 버려야 한다. 단 비닐로 코팅된 전단지는 함께 버려서는 안되며 책표지나 노트의 스프링도 제거해야 한다. 휴지나 1회용 기저귀 등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철이나 알루미늄 재질의 캔류는 내용물을 비우고 재질이 다른 뚜껑을 제거해 배출해야 한다. 특히 부탄기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송곳 등으로 노즐을 둘러 잔여 가스를 제거하고 캔류로 배출해야 한다.

때문에 반드시 송곳 등으로 노즐을 둘러 잔여 가스를 제거하고 캔류로 배출해야 한다.

광구류, 철사, 못 등 고철은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고철류로 분류해 배출해야 하며 우산은 가급적 분리·배출은 고철로 나머지는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

스티로폼 재질인 컵라면 용기는 깨끗하게 씻는다면 분리수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하는 일반 쓰레기다. 컵라면 용기 외에도 코팅된 일회용 용기, 테이프, 포장 그물이나 과일 포장재 등도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

한편, 쓰레기 분기·배출 요령에 대한 당국의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 바람직한 쓰레기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많았다.

성별과 연령대를 모두 고려하면 남자는 70대가 4만4천114명(21.1%), 여자는 50대가 7만5천47명(22.6%)으로 각각 가장 많았다.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 수를 살펴보면 100명 중 1명꼴인 1천689명이 2016년 한해 불면증으로 병원을 방문했다.

특히 고연령으로 갈수록 10만 명당 진료인원이 많았다. 80세 이상에서는 100명 중 4명꼴로 불면증을 앓았다. 나이가 들수록 우울증, 불안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가 늘어날뿐더러 소화기와 호흡기, 근골격계 등 신체적 질환에 따른 불편함이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불면증은 주워질수록 환자 수가 증가하고 더워지면 다시 감소하는 계절적 차이도 보였다.

불면증 전체 진료인원 10명 중 약 6명꼴인 59.2%(32만869명)는 50~70대였다. 50대 1만4천777명(21.2%), 60대 10만7천585명(19.9%), 70대 9만8천507명(18.2%) 순으로 진료인원이

‘불면증’ 방치해선 안 된다

밤에도 제대로 잠들지 못하는 불면증 환자가

5년간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한국인 100명 중 1명은 불면증을 앓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불면증(질병코드 F510, G470)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가 2012년 40만3천417명에서 2016년 54만1천958명으로 34.3% 증가했다고 밝혔다.

성별로는 남성이 2012년 15만2천603명에서 2016년 20만9천530명으로 37.3%, 여성은 2012년 25만814명에서 2016년 33만2천428명으로 32.5% 증가했다. 실제 2016년 기준 연령 대별 진료현황을 보면 중장년층 환자 비율이 높았다.

불면증 전체 진료인원 10명 중 약 6명꼴인 59.2%(32만869명)는 50~70대였다. 50대 1만4천777명(21.2%), 60대 10만7천585명(19.9%), 70대 9만8천507명(18.2%) 순으로 진료인원이

기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 우리 국민 저력 믿는다



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에 큰 성원을 보여줬고, 북한 예술단 공연에도 애정 어린 박수를 보냈다. 강원도민은 북한 대표단과 선수단의 이동 편의를 위해 기꺼이 불편을 감수했다.

민주평통은 지난해 11월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성공 개최되기를 기원하며 역대 최초로 지방도시인 강릉 아이스아레나 경기장에서 18기 출범 전세계회의를 개최했다. 해외 곳곳에서 평창 홍보의 밤 행사를 열었고, 거주국 정부와 의회, 주류사회를 상대로 올림픽 참가 및 평화올림픽 실현 캠페인을 전개했다.

그리고 12월 5일 민주평통 최고 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올림픽 기간 한미훈련 잠정 연기', '대북특사 파견', 'IOC 등 국제기구의 북한 참가 설득 활동' 등 평화 올림픽 실현에 필요한 3가지 정책을 대통령에게 긴급 건의했다. 이러한 우리 모두의 성심과 노력이 있었기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 개최하고, 우리 스스로 한반도 평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남북정상회담 성공과 동시에 5월 개최를 목표로 준비 중인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대기 위한 중재자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북한과 미국이 서로 불신이 큰 상황 아래에서는 중재자, 촉진자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보장을 조건으로 비핵화 의사'를 밝혔

고, 대화 도중에는 '전략도발'을 중단하기로 약속했다. 한미훈련을 예전 수준에서 진행하기로 한 것을 양해한다는 것도 북한 스스로 대화의 걸림돌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이제 한반도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남북 공동번영의 길을 열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 위에 섰다. 우리가 주도해 만들어낸 이 소중한 기회를 살피면서 굳건한 평화의 주춧돌을 놓는 것도 용당 우리의 책임이다. 우선은 4월 남북 정상회담을 성과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 정상이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야 한다. 그리고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2018 남북정상회담'은 기준 1, 2차 정상회담과 달리 정부 초반기에 열리는 만큼 정상 간 만남을 정례화 하는 문제도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남북정상회담 성공과 동시에 5월 개최를 목표로 준비 중인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대기 위한 중재자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북한과 미국이 서로 불신이 큰 상황 아래에서는 중재자, 촉진자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

립에 이은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이러한 대한민국의 역할을 염두에 두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합의사항 이행을 담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역사적 회담의 성공을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을 발휘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여기서 좁쌀하면 지난해보다 더 큰 위기애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기적 같은 현대사를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역량을 세계가 다시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우리의 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와 국민이 의지를 결집해 채워나가야 한다.

앞으로의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

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국민 모두가 하나 돼 노력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 수 있다고 믿는다.

지금 우리는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하고 있다. 그 길을 우리가 다 함께 한민족의 이름으로 열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지 않는다. 분단과 전쟁, 권위주의 시대의 암운을 이겨내고 기적의 대한민국을 만든 우리 국민의 저력이 이번에도 미침내 유감없이 발휘되기를 기대한다.

고볼 수 있다.

문제는 현행 면제 기준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면제 대상에 넣지 못할 공공사업이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 그저 '긴급하게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는 명분만 만들면 된다. 정부 입맛대로 운영한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22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금액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타당성 조사를 건너뛰어 버린 결과 지금까지 헬세낭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에타 면제의 순기능도 있겠지만 그렇다 해서 고무줄처럼 제멋대로 작동해서는 곤란하다. 그려잖아도 재정작자가 만성화하고 복지재원 조달에 애를 먹는 미망이 아닌가. 에타 면제가 남발되지 않도록 요건과 대상 등을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레이먼 정부 스스로 재정 준칙을 허무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벚꽃이 만개한 교정에서 모델 워킹실습을..."
대전의 낮 기온이 23도를 웃는 초여름을 날씨를 보인 가운데, 3일 오후 벚꽃이 만개한 대전 유성구 대덕대학교 교정에서 대덕대 모델과 학생들이 야외수업을 하고 있다.
(사진=대덕대 제공)

대덕구 취약계층 '가스타이머콕' 보급

가스안전도시 대덕 달성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 본격 추진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가 가스안전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 등 600세대에 무료로 가스 타이머콕을 지원해 '가스안전도시 대덕' 달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3월 구민의 사랑방에서 '취약계층 가스타이머콕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가스안전공사 대전세종 지역본부와 체결했고, 향후 5년간 가스안전 예방시설 구축을 위한 공동 협조체계를 마련했다.

가스 타이머콕의 본격적인 보급은 이달 30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제품 및 사업자가 확정되는 대로 진행될 예정이며, 올해 1,515세대(대덕구 1,215세대, CN CITY에너지 300세대)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총 6000세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스 타이머콕은 가스레인지 등의 연소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일정 시간이 되면 가스공급을 자동 차단하는 장치로 가스사고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인정받고 있어, 취약계층의 가스안전하고 ZERO화와 안전복지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은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서민층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가스사고 예방과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가스안전하고 제로화를 위한 지속적인 행정·재정적 노력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고 싶은 대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달 7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스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김태선 기자

대전시, 환경성질환 예방 치유 프로그램 운영

대전 광역시는 4월부터 10월까지 환경성질환으로 고통받는 아이들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2018년도 보문산 숲과 함께하는 환경성질환 예방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프로그램은 전문 강사의

'환경성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리요령'

등에 대한 강의

와, 보문산 주요 산책길 걷기, 아

이들과 부모가 함께 친환경 아토

피로션, 모기퇴치제 만들기 체

험 등이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상반기(4~6월)와

하반기(9~10월)로 나누어 매주

토요일 보문산 숲 치유센터(중구 대사동 소재)에서 1기당 25명 내외로 총 15회에 걸쳐 진행된다.

대전시 이운구 환경정책과장은 "환경성질환 예방 치유 프로그램은 2016년도부터 운영 중인 대전시 대표적인 에코힐링 프로그램"이라며 "환경성질환으로 고통 받는 학생들이 평생 건강한 생활습관을 기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젊은생각·비른신문

2006년 5월 17일 창간

발행·편집인 김현정

회장 김성구

논설위원 조정호

전화내선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내선 042)538-1602

광고신청 042)538-16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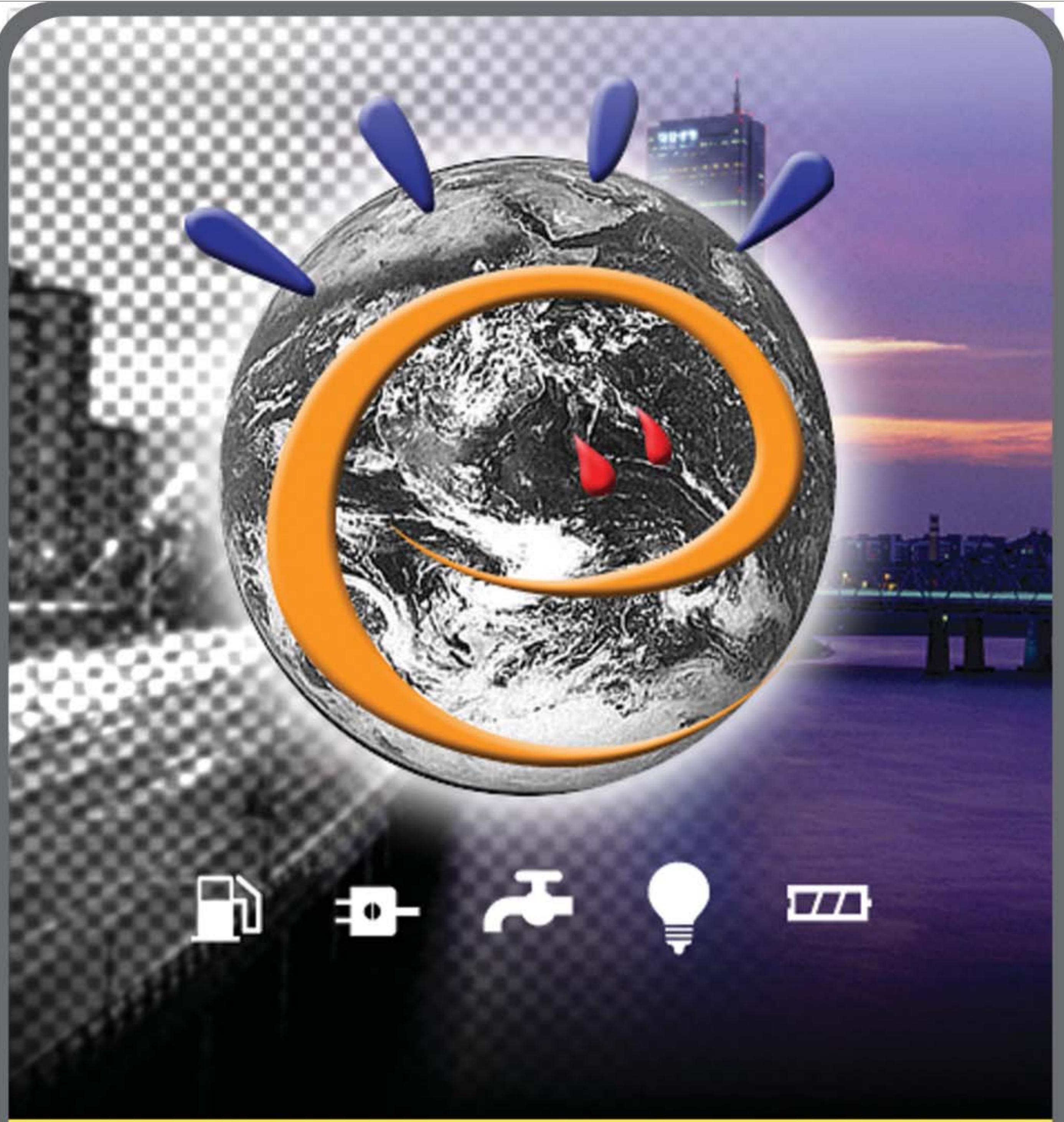
구독료 월 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종로동 63-2

전화 02)6406-5921

팩스 02)392-5143

인쇄처 : 동양일보



고유가 시대 이제는 에너지 절약!

주 관 |



후 원 |

